

예술정책연구 2006-08

연극분야 실태(생태계) 조사

- 연구보고서 -

2006. 12.

서울연극협회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예술정책연구 ‘연극분야 실태(생태계) 조사’ 용역에 대하여
귀 위원회와 2006년 11월 3일에 체결한 연구용역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서울연극협회 회장

연구진

연구감수	채승훈	서울연극협회 회장 / 수원대학교 교수
	김태수	서울연극협회 상임이사 / 극단완자무늬 대표
	정현욱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 극단사다리 대표
	이희진	문화관광부 문화예술분과 자문위원
책임연구원	남기웅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사무국장 / 모아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의숙	파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연구원	김지영	모아엔터테인먼트 이사
	임은아	CP Company 연구원
보조연구원	김선영	서울연극협회 기획팀장
	박창수	그룹동시대 기획실장
	문정현	모아엔터테인먼트 연구원
	김미선	파임커뮤니케이션즈 연구원

차 례

I.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배경	15
2. 연구의 기본 방향	15
3. 연구방법	16

II. 서문 및 조사 개요

1. 서문	19
2. 개념정의 : 연극 생태계	20
3. 조사목적	20
4. 조사의 설계	21
5. 조사의 의의와 과제	25

III. 조사결과

연극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심층조사

1. 응답자 특성	29
2. 연극 생태계 진입과정	31
3. 연극 생태계 만족도	36
4. 연극 생태계에 대한 문제점과 전망	51

연극생태계 환경: 극단현황 조사

1. 극단 일반현황	52
2. 극단 인력현황	64
3. 공연 활동 현황 개괄	70
4. 지원금 수혜현황	84

IV. 연극생태계 지형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연극생태계 구성원의 인식	99
2. 연극 제작극단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00

부록

1. 연극분야 생태계조사 설문지_심층인터뷰	107
2. 연극분야 실태(생태계) 조사 설문지_극단용	113

표 차 례

<표2-1> 연극전문인력 조사개요	22
<표2-2> 극단현황 조사개요	22
<표2-3> 연극전문인력조사 설문항목	23
<표2-4> 극단현황조사 설문항목	24
<표3-1> 단체 성격	52
<표3-2> 주요 활동 장르	53
<표3-3> 사무실 보유 현황	54
<표3-4> 연습실 보유 현황	55
<표3-5> 연간예산_예술활동경비	56
<표3-6> 연간예산규모_예술활동경비 현황	57
<표3-7> 연간예산-운영경비	58
<표3-8> 연간예산규모_운영경비 현황	59
<표3-9> 예산조달_조달방식 개괄	60
<표3-10> 예산조달_자체 및 외부 조달 비율	61
<표3-11> 가맹단체 현황	62
<표3-12> 창립연도로 본 극단 현황	63
<표3-13> 성별 분야별 인력현황	64
<표3-14> 연령별 성별 인력현황_남성	66
<표3-15> 연령별 성별 인력현황_여성	67
<표3-16> 연령별 성별 현황	69
<표3-17> 총 공연 실적	70
<표3-18> 자체 제작공연 현황_공연일수 및 공연횟수	71
<표3-19> 자체 제작공연 현황_관객수	71
<표3-20> 자체 제작공연 현황_수입현황	72
<표3-21> 자체 제작공연 현황_지출현황	73
<표3-22> 공연예술축제 참가 공연 현황_공연일수 및 공연횟수	74

<표3-23> 공연예술축제 참가 공연 현황_수입 및 지출현황	75
<표3-24> 참가 공연예술축제 현황	76
<표3-25> 국내 초청공연 현황_공연일수 및 공연횟수	77
<표3-26> 국내 초청공연 현황_수입 및 지출현황	77
<표3-27> 해외 공연현황_공연일수 및 공연횟수	78
<표3-28> 해외공연현황_수입 및 지출 현황	79
<표3-29> 해외공연현황_제작형태	80
<표3-30> 해외공연현황_추진방법	81
<표3-31> 해외공연현황_진출국가현황	82
<표3-32> 해외공연현황_초청 페스티벌 현황	83
<표3-33> 공연형태별 지원금 의존비율	84
<표3-34> 지원금 수혜현황_지원기관별	85
<표3-35> 지원금 수혜현황_기관별 지원금액현황	86
<표3-36> 지원금 수혜현황_민관공공기관 세부 구성	87
<표3-37> 지원금 수혜현황_중앙정부	87
<표3-38> 지원금 수혜현황_자치단체 시/도	88
<표3-39> 자치단체 시/도 지원금_지원처 및 지원사업	89
<표3-40> 지원금 수혜현황_자치단체 시/군/구	90
<표3-41> 자치단체 시/군/구 지원금_지원처 및 지원사업	91
<표3-42> 지원금 수혜현황_한국문화예술위원회	91
<표3-43> 한국문화예술위원회_지원사업	92
<표3-44> 지원금 수혜 현황_민간공공기관	93
<표3-45> 민간공공기관_지원처 및 지원 사업	94
<표3-46> 지원금 수혜 현황_기업협찬	94
<표3-47> 지원금 수혜 현황_개인 후원금	95

그림 차례

<그림3-1> 연극생태계 항목별 만족도 최빈값	38
<그림3-2> 전반적 만족도	39
<그림3-3> 하는 일에 내용에 대한 만족도	40
<그림3-4>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	41
<그림3-5>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41
<그림3-6>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	42
<그림3-7> 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	43
<그림3-8>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의 활용정도에 대한 만족도	43
<그림3-9> 작업 시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44
<그림3-10>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44
<그림3-11> 일의 평가에 대한 만족도	45
<그림3-12>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45
<그림3-13>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에 대한 만족도	46
<그림3-14> 직업에서의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	46
<그림3-15> 연극분야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	47
<그림3-16> ‘연극인’으로서의 인지정도	50
<그림3-17> 단체 성격	52
<그림3-18> 주요활동 장르	53
<그림3-19> 사무실 보유현황	54
<그림3-20> 연습실 보유현황	55
<그림3-21> 연간 예산규모_예술활동경비 현황	57
<그림3-22> 연간 예산규모_운영경비 현황	59
<그림3-23> 예산조달_조달방식 개괄	60
<그림3-24> 창립연도로 본 단체현황	63

<그림3-25> 분야별 성별 인력현황	65
<그림3-26> 분야별 남성/여성 인력 구성비	65
<그림3-27> 연령별 분야별 인력현황_남성	68
<그림3-28> 연령별 분야별 인력현황_여성	68
<그림3-29> 연령별 성별 현황	68
<그림3-30> 총 공연 실적	70
<그림3-31> 자체제작공연 유료/무료 관객 구성	72
<그림3-32> 자체제작공연_수입재원별 구성	73
<그림3-33> 자체제작공연 현황_지출현황	74
<그림3-34> 공연예술축제참가 수입 재원별 구성	75
<그림3-35> 국내초청공연 수입재원별 구성	78
<그림3-36> 해외공연_수입재원별 구성	79
<그림3-37> 해외공연_제작형태	80
<그림3-38> 해외공연_추진방법	81
<그림3-39> 제작형태별 수입 내 기금의 비율	84
<그림3-40> 지원금 수혜현황_지원기관별	85
<그림3-41> 지원금 수혜 현황_기관별 지원금 금액현황	86
<그림3-42> 중앙정부 지원금 수혜 현황	88
<그림 3-43> 자치단체_시/도 지원금 수혜 현황	89
<그림3-44> 지원금 수혜 현황_자치단체 시/군/구	90
<그림3-45> 한국문화예술위원회_지원금 수혜현황	91
<그림3-46> 민간공공기관_지원금 수혜현황	93
<그림3-47> 기업현찬현황	94
<그림3-48> 개인후원금현황	95

I. 연구개요

1.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연극분야를 구성하는 단체, 창작자, 관련기관 및 행사, 교육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연극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이며 합리적인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기본 방향

- 연극분야 주체자 현황 분석 - 연극분야에 분포되어 있는 주체자의 운영 및 현황 등을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통계자료화 및 분석을 통해 지형도 정립
- 지역별 연극분야 실태 조사 현황 분석 - 16개 시도별 분포되어 있는 연극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통계자료화 및 분석을 통해 지형도 정립
- 교류 및 상호작용 연계 분석 - 연극분야에 세부분야별 교류 및 상호작용 연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연극분야의 산업적 가치와 산업화 발전 방안 모색
- 연극분야 지원정책 해외사례 분석 - 선진화된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제시
- 지원정책 방안 제시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연극분야 문예진흥기금 지원 정책 방안의 제시하여, 문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중장기적 발전 전망 제시 및 연극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3. 연구방법

- ☐ 관련 종사자 표본 설문조사 - 세부 분야별, 활동유형별, 지역별 개인 및 단체의 표본 설문조사 실시
- ☐ 정보제공자(key informant)의 인터뷰 연구 - 표본 설문조사 응답자 중 Key informant를 설정 방문 인터뷰 조사 실시
- ☐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현실적 대안 모색 - 세부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연구내용에 대한 현실적 타당성 검토와 가능한 대안을 모색케 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 ☐ 문헌 및 자료 연구 - 다양한 해외 사례 및 문헌과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자료 연구를 수행
- ☐ 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정책 대안 모색 - 정책 전문가 등의 다양한 주체구성의 방법론 중 현실 타당성이 높은 것들을 검토 선별토록 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

II. 서문 및 조사개요

II. 서문 및 조사개요

1. 서문

<연극분야 실태(생태계)조사>는 연극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운영 및 활동현황을 조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연극계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에 앞서 연극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성격에 대한 논의의 과정이 있었다. 연극 분야의 생태계에서 연극생산자 혹은 연극 공급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단체와 그들의 활동의 결과물이 연극공연물만으로 조사 범위를 제한하면 연극분야 생태계 전반의 이해로는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현실적으로 생태계 전반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연극예술의 공급부분, 즉 연극 전문 인력과 연극을 제작하는 극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그동안 연극계 뿐 만 아니라 공연계 전반에 걸친 자료부재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이 보고서에 실린 자료 중 연극 단체의 현황을 위하여 2005년과 2006년에 발표된 기존의 통계들을 기초로 하여 조사범위를 정하였으며 여러 절차를 거쳐 전국 400여개의 연극단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이번 조사에서는 심층인터뷰에 중점을 두어, 연극 각 분야에 종사하는 연극인들의 각 분야에 진입하는 과정과 성장, 그리고 생활에 관련된 솔직한 경험담과 각 분야마다의 특성과 발전에 필요한 제안을 들었다. 각 분야와 세대를 대표하기 위해 수량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나 진지한 인터뷰 과정과 내용은 앞으로의 조사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자료제공에 도움을 주신 연극인과 관련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조사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 개념정의 : 연극 생태계

이번 조사는 연극분야 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연극 분야 예술가들은 연극이 처한 현실이 연극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극분야를 비롯한 예술의 위기는 예술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계 자체를 해체시켜버릴 수 있을 만큼의 한계로 직면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예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한계가 중첩되어 있는 결과로 보고 있다. 연극분야 생태계 조사로 명명한 이유는 연극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한다.

3. 조사목적

예술인과 예술분야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루는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연극분야로 한정된 조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 이번 조사에서는 연극예술의 공급 부문(연극 전문 인력과 연극 제작극단)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연극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운영 및 활동현황을 조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조사는 예술 분야 생태계를 조사, 연구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조사의 설계

1) 조사대상의 설정

연극예술의 공급부분, 즉 연극 전문 인력과 연극을 제작하는 극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연극 전문 인력

먼저 연령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제1그룹 : 만 25세 이상 만33세 미만

제2그룹 : 만 34세 이상 만40세 미만

제3그룹 : 만 40세 이상

중앙과 지방일간지 인터넷판 연극관련 기사 검색을 통해 2006년도 연극 공연 실적이 있는 명단을 그룹별로 작성한 후 전문가 추천을 통해 명단을 최종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시 연령그룹별로 활동 분야(배우부문, 연출부문, 극작부문, 기술스태프 부문, 기획/제작부문, 평론/이론 부문)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안배하였다.

● 연극을 제작하는 극단

특별한 등록절차나 신고절차가 없어 공식적으로 확보된 리스트가 없어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어려웠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 리스트를 수집하였다. 첫째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같이 최근 2년 이내에 수행된 공연예술 관련 기존 조사의 모집단 리스트, 둘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에 최근 2년간 기금지원 신청을 한 단체의 리스트, 셋째 연극 관련 협회 회원 단체 리스트 등을 수집하여 중복 체크를 한 후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연락처, 최근

활동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 변경, 폐업, 명단 중복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400여개의 조사대상 극단 리스트를 확정하였다.

2)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설계	표본조사
조사대상	배우, 연출, 극작, 기술스태프, 기획/제작, 평론/이론 6개 분야 전문 인력 명
조사방법	인터뷰
조사기간	2007. 1. 4 : 제1그룹 2007. 1. 11 : 제2그룹 2007. 1. 16 : 제3그룹
조사주관	서울연극협회 : 설문작성, 모집단명부작성, 조사결과분석, 실사
조사문항	진입경로, 만족도, 문제점 및 전망

<표2-1> 연극전문인력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설계	전수조사
조사대상	극단 400개
조사방법	팩스 및 이메일 조사
조사기간	2006.12.7 ~2007.1.29
조사주관	서울연극협회 : 설문작성, 모집단명부작성, 조사결과분석, 실사
조사문항	단체일반현황, 단체인력현황, 공연현황, 지원금수혜현황

<표2-2> 극단 현황 조사 개요

3) 자료분석

응답된 설문지 검토, 데이터코딩과 마이닝 이후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4) 조사항목

① 연극전문인력 조사

연극생태계에 어떤 경로로 진입하여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일에 대한 만족도와 생태계에 대한 문제점 및 전망을 물었다.

연극생태계에 진입하게 된 경로는 주요한 동기, 처음 일하게 된 경로, 현재 주된 일, 담당했던 일의 변화,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 프로그램과 그 소요기간을 파악하였다. 연극생태계에 대한 만족도는 계약여부, 보수, 보수선정주체, 월평균수입,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 유무, 다른 일자리 병행 유무, 프로젝트 참여기간, 사항별 만족도, 이직고려여부 유무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극생태계에 대한 문제점 및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연극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연극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물었다.

연극생태계 진입경로	동기, 경로, 일의 변화, 최종적 목표, 교육프로그램
연극생태계 만족도	계약여부, 보수수준, 보수선정주체, 월평균수입, 주당평균근로시간, 사회보험가입 유무, 다른 일자리 병행유무, 프로젝트 참여시간, 사항별(전반적 만족도, 하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소득수준, 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만족도,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의 활용정도, 작업 시 대인관계, 복리후생, 일의평가, 직업의 안정성, 사회적 평판, 직업에서의 장래성, 연극분야 발전가능성), 타분야에서의 종사경험유무, 이직고려여부 유무
연극생태계에 대한 문제점 및 전망	연극인으로서의 인식 여부, 연극분야전망, 연극분야에서의 가장 큰 문제, 인력측면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

<표2-3> 연극전문인력조사 설문항목

② 극단현황 조사

<극단현황조사>의 설문항은 단체일반현황, 단체인력현황, 공연현황, 지원금수혜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체일반현황에서는 단체명, 운영책임, 설립연도, 단체성격,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여부, 사무실과 연습실 보유 현황, 연간예산규모, 예산조달방법, 가맹단체, 주요 활동 장르를 파악하고 있다. 단체인력현황에서는 극작, 배우, 연출, 기술스태프, 기획/제작, 이론/평론, 사무인력별로 성별, 연령별 구성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공연현황은 총공연실적과 함께 이를 다시 자체제작(정기, 기획) 공연, 공연예술축제 참가, 국내초청공연, 해외공연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지원금수혜현황은 중앙정부, 자치단체(시/도), 자치단체(시/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공공기관, 기업협찬, 개인후원금으로 나누어 각각 수혜여부, 지원처, 지원사업명, 지원받은 액수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단체일반현황	단체명, 대표자, 설립연도, 단체성격,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여부, 사무실, 연습실, 연간예산규모, 예산조달, 가맹단체명, 주요활동장르
단체인력현황	극작, 배우, 연출, 기술스태프, 기획/제작, 이론/평론, 사무인력의 성별/연령별 현황
공연현황	<p>총 공연실적 : 자체제작(정기, 기획) 공연, 공연예술축제 참가, 국내초청공연, 해외공연</p> <p>자체제작(정기, 기획) 공연 실적 : 작품명, 공연장, 공연일수, 공연횟수, 유료관객수, 무료관객수, 수입(입장수입, 각종기금, 협찬금, 기타수입), 기타 수입내용, 지출(대관료, 제작비, 인건비, 홍보비)</p> <p>공연예술축제 참가 : 작품명, 공연예술축제명, 공연장, 공연일수, 공연횟수, 수입(참가사례, 입장수입, 각종기금, 기타수입), 기타수입내용, 지출경비</p> <p>국내초청공연 : 작품명, 초청단체명, 공연장, 공연일수, 공연횟수, 수입(초청사례, 입장수입, 각종기금, 기타수입), 기타수입내용, 지출경비</p> <p>해외공연 : 작품명, 국가/도시, 페스티벌명, 공연장, 공연일수, 공연횟수, 수입(초청사례, 입장수입, 각종기금, 기타수입), 기타수입내용, 지출경비, 제작형태(초청단체제작, 단체직접제작, 공동제작), 추진방법(직접접촉, 기관추천, 해외에이전트, 국내에이전트, 아트마켓)</p>
지원금수혜현황	중앙정부, 자치단체(시/도), 자치단체(시/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공공기관, 기업협찬, 개인후원금 별 수혜여부, 지원처, 지원사업명, 지원받은액수

<표 2-4> 극단현황조사 설문항목

5. 조사의 의의와 과제

1) 조사의 의의

이번 조사의 의의는 연극분야를 특화시켜 그 구성인들의 운영 및 활동현황을 심층 분석했다는 데 있다. 특히 창작, 매개, 향수활동에 종사하는 주체 중 창작 활동 주체의 생존과 활동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연극 전문 인력과 극단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2) 조사의 한계와 과제

연극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보다는 전수조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극단현황 조사의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자료수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극단의 경우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이 없는 경우가 많아 무응답으로 처리되거나 설문지 작성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객관적 문항이 부족한 경우는 응답자가 임의대로 추리하거나 기억에 의존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보내준 경우도 있었다.

연극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의 경우 조사 방법상의 한계가 있었다. 그룹인터뷰로 진행하여 참여자들에게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측면은 있으나 제한된 시간 내 참여자들로부터 심도 있는 답변을 얻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연극분야 (생태계)조사>는 조사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때 비로소 통계로서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후속 조사 작업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면

먼저 조사대상의 문제 : 자료로서 통계적 의의를 지니기 위해 전수조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문항에 충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고안이 필요하다. 인력조사의 경우는 적정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주기의 문제 : 극단의 경우 1년에 보통 3-4작품을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기보다 격년제가 적절하다고 본다. 3년제 혹은 그 이상은 현장의 흐름을 반영하기에는 그 기간이 길다고 판단된다.

III. 조사결과

III. 조사결과

연극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심층조사

1. 응답자 특성

다음 표는 심층인터뷰에 응했던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직업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비슷하게 놓고(남성 55%, 여성 45%) 만 25세~ 33세를 제1그룹, 만34세~ 40세 제2그룹, 만 40세 이상을 제3그룹으로 놓고 총 11명의 연극 전문 인력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룹	성별	나이	분야	입문연도 (총경력)	참여했던 작품의 수		학력	전공
					완성작품	미완성작품		
I	여	30	극작	1999년 (8년)	8편	무응답	대학교졸업	인문사회계
	여	32	기획/제작	1999년 (8년)	20편이상	5편	대학교졸업	연극관련학과
	여	30	평론/이론	2003년 (4년)	무응답	무응답	대학원졸업	연극관련학과
	남	30	기술스태프	1998년 (9년)	약 100편	무응답	대학교졸업	연극관련학과
	남	30	배우	1999년 (8년)	30편	1편	전문대졸업	연극관련학과
II	남	35	연출	1992년 (15년)	20여편	무응답	전문대졸업	연극관련학과
	여	36	기술스태프	1991년 (16년)	150편	3~5편	전문대졸업	예술계(연극외)
	남	39	연출	1998년 (9년)	18편	5편	대학교졸업	인문사회계
III	여	43	배우	1986년 (20년)	무응답	무응답	대학교졸업	인문사회계
	남	41	배우	1986년 (20년)	80편	10편	대학교졸업	예술계(연극외)
	남	49	연출	1978년 (29년)	180편	무응답	대학원졸업	연극관련학과

* 미완성작품은 프리프로덕션단계가 끝나고 주요 배우 및 스태프 라인업이 된 후 중단된 작품을 의미

* 전공은 최종 학력의 전공을 의미

1) 그룹별 특성

(단위: 년,명)

구분	평균 총 경력	학력(명)	전공(명)
제1그룹	7.4	전문대졸업(1) 대학교졸업(3) 대학원졸업(1)	연극관련학과(4) 인문사회계(1)
제2그룹	13.3	전문대졸업(2) 대학교졸업(1)	예술계(1) 인문사회계(1) 연극관련학과(1)
제3그룹	23	대학교졸업(1) 대학원졸업(2)	인문사회계(1) 연극관련학과(1) 예술계(1)

교육수준으로 보면 연극전문인력은 대학교 졸업자 중심(전문대 졸업포함)으로 이들이 81.8%에 이르고 있다.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는 18.2%를 차지하고 있다.¹⁾ 전공별로 보면, 연극 관련 전공을 이수한 대상자가 54.5%나 되는데 대학수준 이상의 교육에서 전공과 연극분야와의 연계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²⁾ 예술계(연극 외)와 인문사회계 전공자의 비중 역시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총 경력을 살펴보면 제1그룹은 각각 평균 7.4년, 제2그룹 13.3년, 제3그룹 23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1) 2003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문화관광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극분야 응답자는 대학재학 이상이 전체의 83.7%로 나타난다.

2) 최종 학력전공과 현재 문화예술활동분야의 일치정도를 물었을 때 '일치한다'로 응답한 비율이 연극이 인접 공연예술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음악(91%), 무용(79.3%), 연극(48.4%) (2003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 연극 생태계 진입 과정

연극생태계 진입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동기, 진입경로에 대해 그룹별로 살펴보았다.

1) 연극 생태계 진입 동기

다음 표는 연극전문인력이 연극생태계에 입문하게 된 동기를 그룹별로 보여주고 있다. <연극생태계의 매력>으로 답한 응답자가 많았고, ‘연극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학창 시절 ‘관련 활동’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극전문인력들이 꿈을 실현하는 매체로 연극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중복응답은 제외)
제1그룹	연극의 매력 하고 싶어서 연극을 전공한 것이 계기 고등학교 때 연극반 활동
제2그룹	이 분야의 일이 하고 싶어서 가장 좋아하고 지치지 않는 일을 생각해보니 연극이라서 고등학교 때 연극을 보고
제3그룹	대학시절 연극반 활동 연극의 매력

배우(남, 30세) 군대에서 휴가 나와 뮤지컬 한 편을 보았는데, 그때 나왔던 당시 유명 스타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이 멋지게 보였다. 제대하자마자 무작정 관련 협회에 이력서를 넣었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포스팅 등 단순 업무였지만.

기술스태프(여, 36) 고 3때 연극관람을 하였는데 그때 본 공연에서 조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공연 끝나고 조명실로 찾아가 어떻게 배울지 물어보기까지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연극과로 대학진학을 하게 되었다.

2) 진입경로

연극생태계에서 처음 일하게 된 주요 경로는 ‘지인’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스로 찾아서’ 관련 단체에 들어가거나 연극 관련 학교 졸업 후 ‘자연스럽게’ 관련 분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었다.³⁾

	응답(중복응답은 제외)
제1그룹	연극전공 지인의 권유
제2그룹	지인의 권유 신춘문예당선 연극전공
제3그룹	학창시절 연극반 활동

극작(여, 30) 작가는 보통 등단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등단하고 끝나는 경우 인맥이 없으므로 그만둔 경우가 많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녀야 할 듯. 동지를 찾는 게 힘들었다. 처음엔 선생님들의 소개로 시작하지만 뜻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사실 일은 연출로 시작하는 게 많다. 커리어를 어느 정도 쌓은 후에는 그 커리어가 소개의 발판이 된다.

배우(남, 30) 아는 분의 추천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아직도 진입중이라고 생각한다. 배우는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 잘 할 때까지 해보려고 배우로 활동 중이다.

기획/제작(여, 32) 연극을 전공했고, 이 일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학교 졸업 후 배우나 연출 아니면 할 게 없었다. 페스티벌,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획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극단을 소개받았다. 그러나 극단에서 ‘기획일’을 배우기에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때 전문기획사를 소개받았다.

3) 2003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극인의 데뷔방식은 단체입단이 64.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인추천(14.2%), 공모(9.5%), 취업(9.5%), 기타(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출, 연기부분에서는 단체입단이 각각 82.1%, 81.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술스태프부문에서는 취업(37.1%), 개인추천(28.6%), 단체입단(20.0%)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데뷔가 이루어졌다.

배우(여, 43) 대학 연극반 활동 후 프로극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우리는 아카데미하게 공부하는 연극인이 되고 싶어서 친구들과 극단을 만들었다. 나에게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다.

3) 교육 및 경력형성과정

교육은 생태계 구성원을 생태계에 적응시키고 인적자본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시한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는 정규교육(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도제방식훈련, 비정규교육(학원, 아카데미, 과외, 개인지도), 해외 유학/연수, 실질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현장 훈련, 독학이 있다.

① 유용한 교육프로그램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그룹별 응답은 아래와 같다.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현장 훈련’이 가장 많았는데, 그룹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극생태계에 입문한 지 평균 7년차 정도 된 30대 초반인 제1그룹은 현장 훈련 외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비슷하게 도움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제1그룹은 연극 제작 참여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정규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문 평균 13년차 이상의 제2그룹과 제3그룹의 경우에는 정규교육으로 응답한 경우보다는 해외유학이나 연수, 독학, 현장훈련으로 대답한 경우가 많았다. 연극분야 종사기간과 경험이 늘어날수록 정규교육이 갖는 중요성은 하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입문 13년차인 제2그룹의 경우 해외유학이나 연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연극생태계에 진입하는 과정 자체를 정규교육과정과 현장훈련을 동일하게 여기고 안정적인 진입 후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을 높이 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중복응답은 제외)
제1그룹	정규교육과정/실질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현장 훈련> 비정규교육
제2그룹	해외유학이나 연수>독학/비정규교육
제3그룹	실질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현장 훈련

기술스태프(여, 36) 6개월 해외연수가 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다. 100편 넘게 작품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깨뜨릴 수 있었다. 연수갔던 거기 현지 극장도 열악하긴 우리와 마찬가지로이지만, 집중적으로 작품에 몰입하면서 많이 배웠다. 한국에서 공연을 보는 것하고 현지에서 완전 몰입하고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연수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예술위원회에서는 이미 '된사람'들을 보내주는 것 같다. 가능성 있는 사람들. 근데 사실 이 기준도 모호하기는 하다.

배우(남, 30) 교육프로그램보다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운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 연극판에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초-연극의 기원 같은 거-를 몰랐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다 그런 기초를 배우고 싶어서 학교에 들어갔다. 기본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연출(남, 35) 연출로 데뷔하기까지는 연출부의 포지션으로 적어도 1년 정도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금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스스로가 두렵지만 이제 내 작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온다.

배우(남, 41)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운 게 평생 가고 그 배움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걸 느낀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는 무대에 자꾸 서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무대에 설 수 있게 준비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최선을 다하고.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연기 못하는 배우들의 연극을 보고나서 연극에 대해 실망하게 된다. 재교육 등의 기회가 많아야하고, 재교육의 경우는 일정 정도 참가비는 받아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 수행 시 어려움에 대해서도 물었다. 대부분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고 응답하였는데 해외유학이나 연수를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여기는 제2그룹의 경우에는 교육비의 부담, 언어소통 문제, 시간의 부족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하였다.

연출(남, 39) 외국 가서 공연을 보고 싶다. 보면 아니까. 근데 시간과 돈이 문제다. 연수제도나 지원금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짜는 의미가 없다. 본인부담 반하고, 지원을 반 정도 받고 그래야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제도가 정기적으로 있다면 스스로 준비하고 모으고 그렇게 될 것 같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준비하게 되니까.

②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받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외의 교육을 받고 싶다면 무엇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인지 물었다. 다음 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해외유학이나 연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1그룹은 현장훈련과 정규교육과정, 독학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들 그룹들은 진입은 하였으나 연극생태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화하는 데에 아직도 스스로가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때문인 것 같다.

배우(여, 43) 후배들은 모르겠지만 내 위 선배들에게 재교육은 어려울 것 같다. 교육보다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할 것이다. 공연형태로만 가능하지 다른 형태의 재교육이 가능할까? 알음알음하는 작업이 연극작업인데 선배들은 아마도 애매해하실 듯.

기술스태프(여, 36) 워크숍을 많이 하되 집중력 있는 워크숍을 하는 것이 좋을 듯. 20-30명 정도? 현재는 강의 형식이 많은데 실전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집중력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실제 교육의 효과가 많을 것이다.

교육훈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이러한 교육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로는 전반적으로 '기회가 없어서'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서'가 가장 많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다음으로 많았다. 이러한 교육훈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극참여기간 이외에 해외유학이나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용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자체가 없었다. 있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교육내용'이라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는 기술스태프처럼 현대 과학 기술에 빠르게 대처해야하는 직군에서 나왔다.

	응답(중복응답은 제외)
제1그룹	해외유학이나 연수, 현장훈련>정규교육과정, 독학
제2그룹	해외유학이나 연수
제3그룹	해외유학이나 연수

3. 연극 생태계 만족도

지금까지 연극전문인력의 동기, 진입경로, 교육 및 경력형성과정에 대해 보았다. 이 후에는 먼저 연극전문인력의 근로조건에 대해 살펴본 후 이러한 전문 인력이 연극 생태계 진입 후 생태계 내에서의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려 한다.

1) 근로조건

	계약여부	계약기간	보수수준	보수결정주체	주당 평균근로일수/ 주당 평균근로시간
제1그룹	계약하지 않았다	3개월	총60만원	무응답	6일/ 24시간
	계약했다 그러나 대부분 구두계약이다	4개월	총50만원	무응답	3일/ 24시간
	계약할 예정이다	6개월	총 300만원+α	연극제작자	5일/ 40시간
	계약하지 않았다	4개월	무응답	무응답	7일/ 84시간
	무응답				
제2그룹	계약했다(6:4비율로 40%는 계약했다)	3개월	총 800만원	상호협의	3일/ 24시간
	계약했다	4개월	무응답	연극제작자	6일/ 72시간
	계약하지 않았다. 안한 경우가 반사다.	6개월	기타 (직접 제작에 참여하여 보수책정안됨)	본인	3일/ 30시간
제3그룹	무응답	4개월	무응답	무응답	7일/ 70시간
	계약했다	3개월	약 2,000만원	상호협의	4일/ 32시간
	무응답				

먼저 <이 일자리에서 일할 때 계약을 하였는지> 물었다. 이때 ‘이 일자리’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최근 했던 연극 프로젝트를 말한다.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해도 구두계약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평균적으로 계약기간은 4.1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연극 한편이 완성되는 제작과정 기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연극 제작과정은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으로 구분된다.

기술스태프(남, 30) 계약했다. 돈을 받고 시작했다. 대부분 구두계약이 많다. 그래도 스태프 파트가 제일 낫다는 소리도 많이 하는 걸로 안다. 그래도 밥벌이 정도는 아니다. 사실 영화일로 채우고 있다.

<이 일자리에서 계약된 보수(계약이 없으면, 예상되는) 보수>에 대해 물었으나 보수수준이 양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약된 보수는 월 몇만원 혹은 프로젝트 당 총 몇만원 중 선택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월 평균보수로 계산해보면 최저 월 125,000원에서 최고 월 6,000,000원으로 임금격차가 약 5백 8십만원이나 된다⁴⁾. ⁵⁾

<이러한 보수는 누가 정하였는지> 물었을 때 제1그룹은 연극제작자로 대부분 답했고, 연차가 13년 이상 된 제2그룹의 경우 ‘상호협약’하에 정한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의 보수를 책정하지 않고 시작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전까지는 계약주체와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노동의 대가에 대해 논의하기 어려운 불평등한 관계를 지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극작(여, 30) 돈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까지 가도 무대화가 안되도 작가의 경우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작가 입장에서는 무대에만 안올렸지, 작업을 다 마친 것이나 같다. 사실 대본 다 쓰고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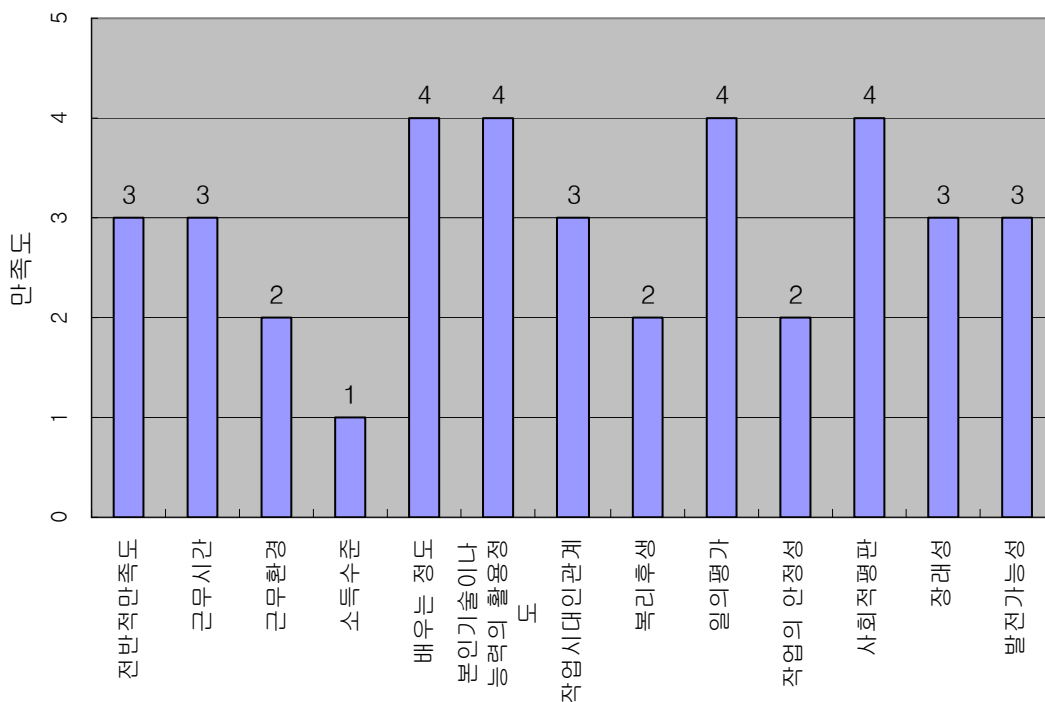
4) 2006년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65만원으로, 한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는 월평균임금은 131만원으로 나타난다.

5) 2003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예술가 개인 수입(연극분야)이 150만원 이하 인 경우는 38.4%로 나타나는 데, 무용은 36.5%, 음악은 21.5%였다.

들어가도 무대 올리기 전까지 수정작업이 계속해서 들어간다. 공연 올리고 나서도 관여해야 하고, 작업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대접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작가는 부업이 많아야 한다. 그러다보면 작업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대본을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 같다.

2) 일자리 만족도

다음 그림은 연극생태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들에 대해 가장 많이 응답한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정도’, ‘본인기술이나 능력의 활용정도’, ‘일의 평가’,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다. 이에 반해 만족도가 낮게 나온 항목은 ‘근무환경’, ‘소득수준,’ ‘복리후생’, ‘직업의 안정성’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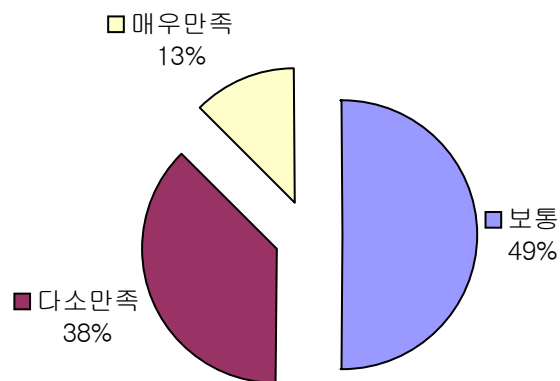


<그림3-1> 연극생태계 항목별 만족도 최빈값

주: 5점은 매우만족, 4점은 다소만족, 3점은 보통, 2점은 다소불만족, 1점은 매우 불만족을 나타냄.

① 전반적 만족도

<현재 일하고 있는 연극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었을 때 보통이 49%, 다소만족이 38%, 매우만족이 13%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대답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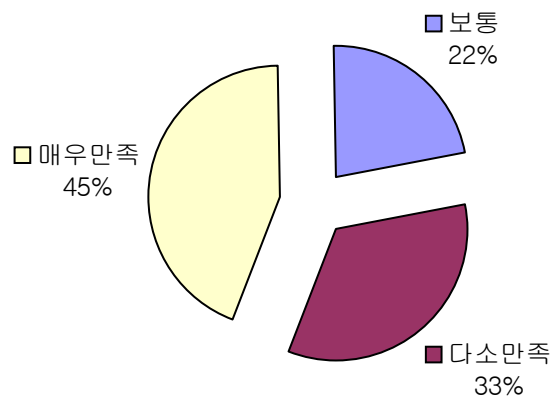


<그림3-2> 전반적 만족도

연출(남, 35) 영화분야에서 ‘시나리오를 개발하라’는 아이디어는 재미있다. 하지만 작업의 출발점이 다르다. 영화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웬지 영화분야에서 일하면 이용당하고 휘둘리고 바라보고. 여기서는 내 자신의 자신감으로 하고 있다.

② 하는 일의 내용

<하는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으로’ 연극생태계 내에서 일의 내용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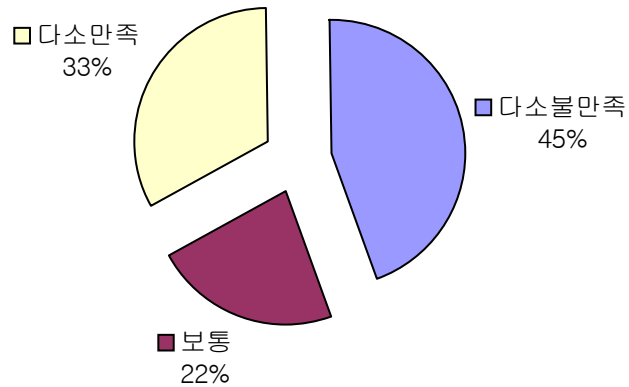


<그림3-3> 하는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기술스태프(여, 36) 극장 소속으로 오랫동안 회사생활을 했는데, 회사는 그만둔 이유는 연차수가 높아질수록 극장의 기술감독과 행정 등의 관리를 겸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운영에 관한 회의 등 관심 없는 일을 하다가 지쳤던 것 같다.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무실을 내서 자기 스타일도 있고, 공동작업을 행복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을 키우고 싶다.

③ 근무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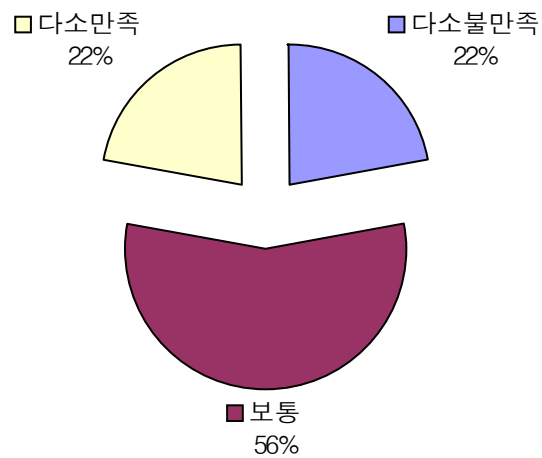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만족한다’(33%)보다는 ‘다소 불만족하다’(45%)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림3-4>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④ 근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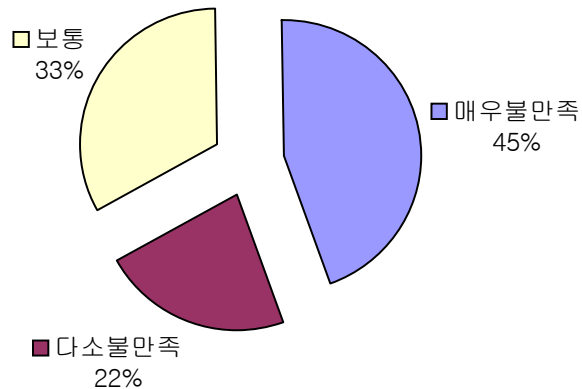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대답보다는 ‘다소만족’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림3-5>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⑤ 소득수준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었다. 전체 중 67%나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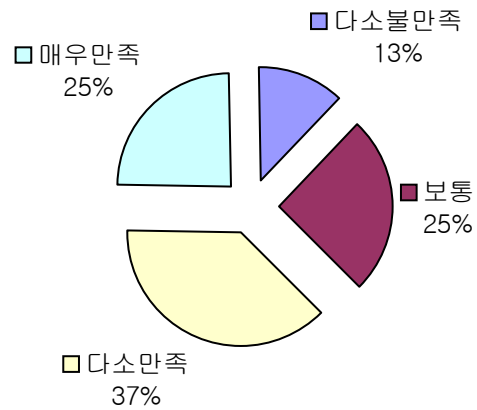


<그림3-6>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

연출(49, 연출) 연극에서 200만원 받을 때 드라마는 2천만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 10배가 넘는 수입이 차이가 난다. 정기적이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맛보게 되면 다시 야전으로 오기 힘들다.

⑥ 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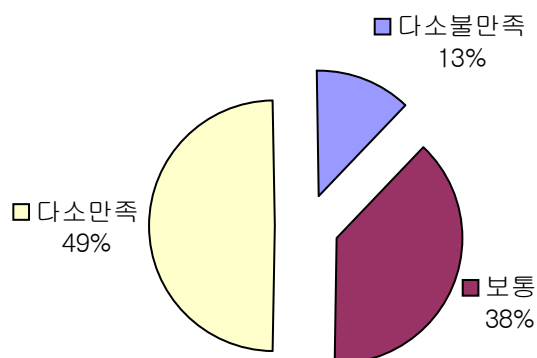
<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정도>는 다소만족>매우만족>보통>다소불만족 순서대로 대답해주었다.



<그림3-7> 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

⑦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의 활용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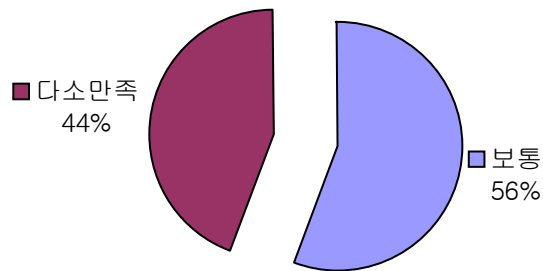
연극생태계에서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의 활용정도> 역시 만족한다는 대답이 불만족하다는 대답보다 더 많았다.



<그림3-8>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의 활용정도에 대한 만족도

⑧ 작업 시 대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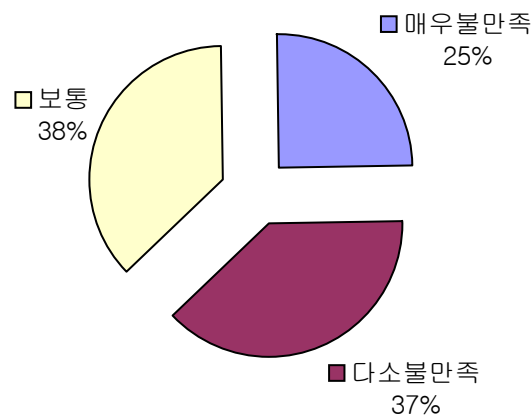
<팀워크를 이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공동작업>시 대인관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9> 작업 시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⑨ 복리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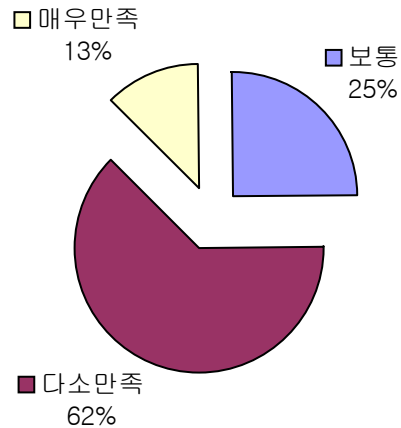
<복리후생>에 대한 항목의 경우의 경우 만족한다는 대답보다는 불만족스럽다는 대답이 전체의 62%나 된다.



<그림 3-10>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⑩ 일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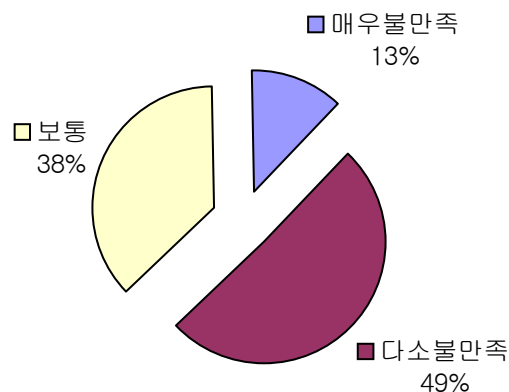
<일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만족한다’와 ‘매우만족한다’가 전체의 78%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3-11> 일의 평가에 대한 만족도

⑪ 직업의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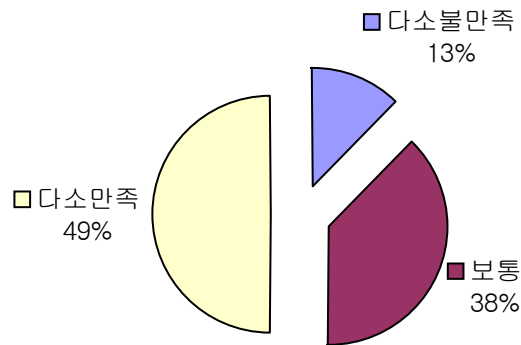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못한다’가 전체의 62%나 된다. 연극생태계 내에서 일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생계유지수단으로서의 직업으로써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3-12>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⑫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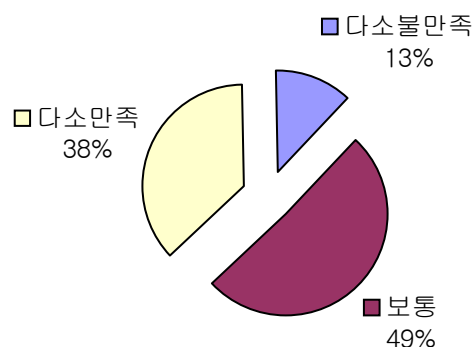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일에 대한 외부의 평가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보다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3-13>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에 대한 만족도

⑬ 직업에서의 장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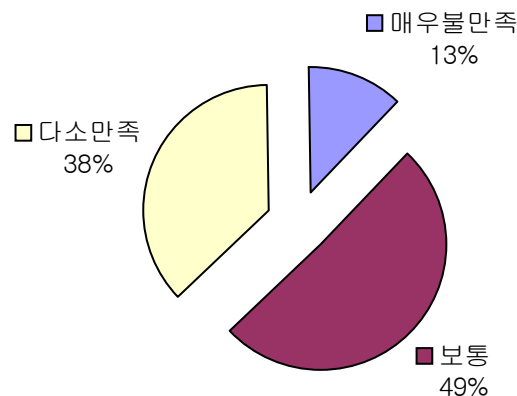
<직업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못한다’가 전체의 62%나 되는데 반해 직업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38% 정도 된다. 직업군으로서 연극생태계가 불안하기는 하나 연극생태계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3-14> 직업에서의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

⑭ 연극분야 발전가능성

<연극분야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도 ‘직업에서의 장래성’과 유사하게 ‘만족한다’는 38%, ‘매우불만족한다’가 13% 나왔다.



<그림3-15> 연극분야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

기술스태프(남, 30) 일할 때 안 된다고 해본 적이 없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게 문제다. 열의를 안보여서 그렇다. 연극은 참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건데 너무 참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다.

배우(남, 30) 올해의 연극, 내년의 연극을 기대하는 일은 재미있다. 창작이든 번역이든 무대화되었을 때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즐겁기 위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항상 문제점은 있다.

제작/기획(여, 32) 예전보다 인력이 늘어났다. 살아남는다, 버틴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한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다양화되지 않을까? 연극이라는 매체의 속성상 가늘고 길게 살아남지 않을까도 싶다. 오히려 연극의 속성에 더 충실한 작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기초예술로서 연극으로 더 충실하게 자리매김할 것 같다.

연출(남, 39) 비관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네이션 없이 연극자체로 자생력을 갖기는 어렵다. 지원을 받으면 숨통이 트인다. 연극이 가진 태생적 한계다. 상위 % 안에 드는 작품안에 들기 위해 사는 것 같다.

기술스태프(여, 36) 비관적이다. 그러나 연극은 발판이다. 예전엔 90%이상이 연극작업이었으나 지금은 뮤지컬과 연극의 작업 비율이 6:4정도다. 연극 작품수준도 많아진 것에 비해 수준은 더 낮아진 것 같다. 연극 자체로만은 살아남기 어려울 듯. 다양성에 비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많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관객이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지만 실험극 같은 다양함이 살아있는 게 필요하다. 꼭 필요하지만 외면당할까 두려운 작품을 올리는 데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이 두려움의 극복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건 기다려줘야 한다.

연출(남, 49) 먹고 살게 해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좋은 제작여건을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 형태의 지원만 있다면 연극계의 전망은 있다. 연극적 기초가 없다면 뮤지컬도 성공할 수 없다. 공연예술의 기초가 바로 연극 아닌가?

배우(여, 43) 연극을 통해 경제적인 면에서 대단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자본주의 시스템과 연극은 맞지 않는다. 어릴 때 내린 결론이다. 좋은 작품을 많이 올리는 극장의 존재가 관건. 다양한 연극들이 보여 지면 좋겠다.

3) 이직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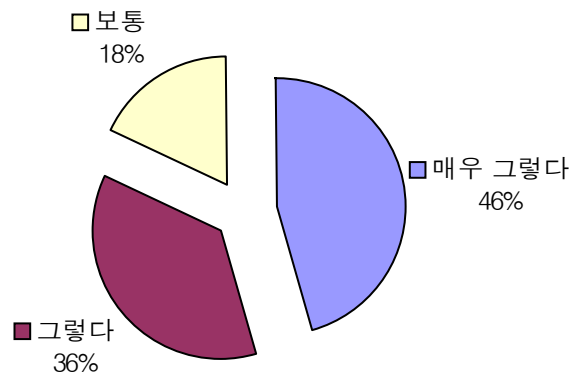
다음 표는 <연극분야 이외 다른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이직을 고려>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45%가 연극 분야 이외 종사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는 ‘능력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못 받을 때’와 ‘일에 대한 만족감을 얻지 못할 때’로 나타났다.

	다른 분야 종사경험유무 (있는 경우 기간/ 연극계 총 경력)	어떤 경우 이직을 고려하는지?
제1그룹	있다(7개월/8년)	일한만큼 대우를 못 받을 때
	있다(본업을 시작하며 계속/9년)	일에 대한 성취도 낮을 때
	없다(무응답/8년)	일에 대한 미래비전과 개인적 적성을 고려할 때
	없다(무응답/8년)	무응답
	없다(무응답/4년)	무응답
제2그룹	있다(8년/9년)	고려한 적 없다
	없다(무응답/16년)	하는 일에 지장을 갖거나 만족감을 얻지 못할 때
	있다(8개월/15년)	고려한 적 없다
제3그룹	있다(2년/20년)	경제적인 이유
	없다(무응답/29년)	고려한 적 없다
	없다(무응답/20년)	무응답

<연극 분야 이외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제시할 경우 이직 의향이 있는지>를 보면 ‘보수가 높으면 이직하겠다’는 경우는 18.8%, 이직할 생각이 없는 경우는 27.2%였다. 그러나 나머지 54%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 상황에 따라 이직에 대한 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4) 연극인으로서 정체성

연극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으로서 본인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 ‘연극인’이라고 생각하는 지 물었을 때 전체의 82%가 ‘그렇다’고 응답해주었다. 연극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의 정체성 인지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림3-16> '연극인'으로서의 인지정도

4. 연극생태계에 대한 문제점과 전망

마지막으로 연극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 물었다.

	연극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극생태계의 전망은?
제1그룹	편하고, 쉽게,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무응답
	현재의 공연에 대한 기록의 부족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작품의 완성도가 부족한 편	무응답
	- 제작과정이 비전문성 - 창작인력의 부족	연극생태계는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상업화가 가속화될수록 '연극다운 연극'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체계적인 시스템 및 인력양성 활동 미비 - 충분치 않은 보수	기초예술로서 본질에 충실하게 될 것 같다.
	무응답	무응답
제2그룹	- 근성과 치밀한 태도, 철학의 부재 - 배우는 적지 않으나 배우층이 두 겹지 않다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비관하지도 않는다
	무응답	잘 모르겠다
	- 높은 대관료 - 작가 및 작품이 부족하다	암울하다
제3그룹	적정한 경제적 보상시스템 미비	힘들지만 유지된다
	무응답	무응답

연극생태계 환경 : 극단현황 조사

1. 극단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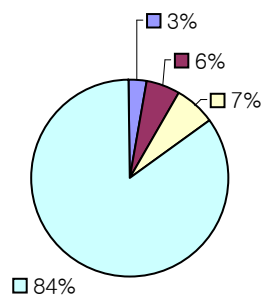
1) 단체성격

이번조사에 응답한 극단의 수는 모두 77개로, 임의단체 형식의 단체가 61개로 전체의 84.7%에 해당하고, 기타 5개(6.9%), 사단법인 4개(5.6%), 주식회사 2개(2.8%)로 나타났다. 6) 기타 응답은 개인사업자, 임의단체였다.

(단위 : 개, %)

	단체수	비율
주식(유한)회사	2	2.8
사단법인	4	5.6
기타	5	6.9
임의단체	61	84.7
합계	72	100.0
모름/무응답	5	

<표 3-1> 단체 성격



■ 주식(유한)회사 ■ 사단법인 ■ 기타 ■ 임의단체

<그림 3-17> 단체 성격

6)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장르별로 볼 때 전 장르(연극, 국악, 양악, 무용, 복합장르)에서 임의단체 형식의 단체가 50~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의단체가 연극은 전체의 67.2%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22.2%로 다른 장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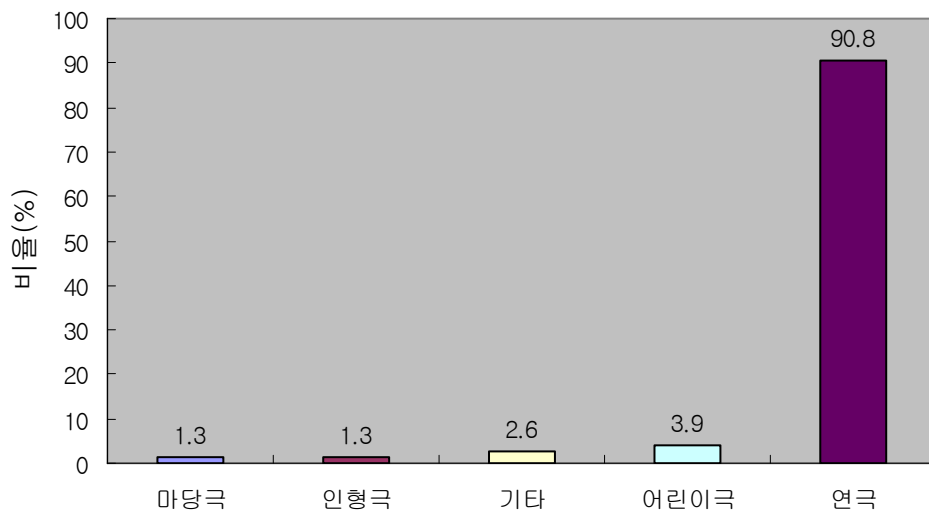
2) 주요 활동 장르

주요 활동 장르로 본 극단의 현황은 연극이 69개로 전체의 90.8%였다. 어린이극으로 응답한 극단은 3개, 기타로 응답한 극단은 2개, 인형극은 1개, 마당극은 1개였다. 기타로 응답한 극단은 주요 활동 장르로 뮤지컬로 답한 경우다.

(단위: 개, %)

	극단수	비율
마당극	1	1.3
인형극	1	1.3
기타	2	2.6
어린이극	3	3.9
연극	69	90.8
합계	76	100.0
모름/무응답	1	

<표 3-2> 주요 활동 장르



<그림 3-18> 주요 활동 장르

3) 부대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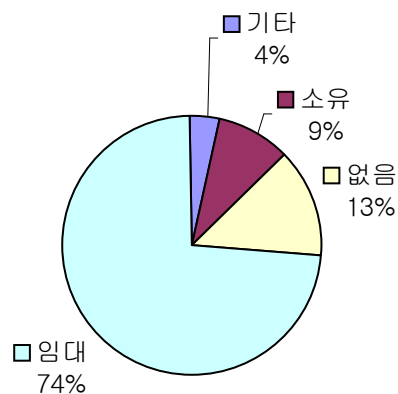
① 사무실 보유 현황

전체의 7%인 9.2%만이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고⁷⁾, 임대(56개, 73.7%)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사무실 없이 운영(10개, 13.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대학 내 설치되어 있거나 개인연구실과 겸하여 사용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단위: 개, %)

	극단수	비율
기타	3	3.9
소유	7	9.2
없음	10	13.2
임대	56	73.7
합계	76	100.0
모름/무응답	1	

<표 3-3> 사무실 보유 현황



<그림 3-19> 사무실 보유 현황

7)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무용(14.2%), 국악(13.25%), 복합장르(12.5%), 양악(9.6%), 연극(9.3%) 순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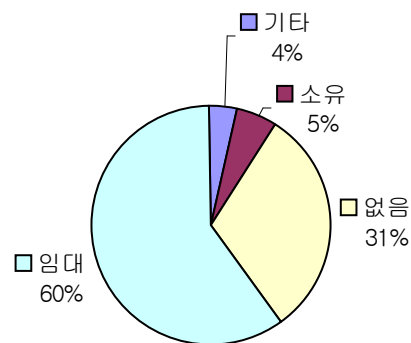
② 연습실 보유 현황

77개 극단 중 자체 연습실을 보유하고 있는 극단은 4개(5.3%)이며⁸⁾, 23개(30.7%)의 극단은 자체 연습실이 없고, 45개(60%)의 극단은 임대계약에 의해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기타는 개인연구실 혹은 사무실과 겸용하거나 대학 내 시설로 사무실과 연습실을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경우였다.

(단위: 개, %)

	극단수	비율
기타	3	4.0
소유	4	5.3
없음	23	30.7
임대	45	60.0
합계	75	100
모름/무응답	2	

<표 3-4> 연습실 보유 현황



<그림 3-20 > 연습실 보유 현황

8)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 시 전체 1,522개의 공연단체 중 연습실을 소유한 경우보다 대부분 임대계약에 의해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실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무용이 16.3%로 가장 높았고, 연극이 7.7%로 가장 낮았다.

4) 연간 예산 규모

연간예산을 예술활동경비와 운영경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극단은 평균 한해 예술활동경비로 9,455만원, 운영경비는 6,042만원을 지출하고 있고, 연간예산은 평균적으로 1억 5,49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① 예술활동경비

(단위: 천원, 개, %)

예술활동경비	극단수	비율
1,000	1	1.4
6,000	1	1.4
7,000	1	1.4
10,000	1	1.4
15,000	1	1.4
20,000	5	7.0
23,000	1	1.4
30,000	4	5.6
32,000	1	1.4
40,000	1	1.4
45,000	1	1.4
50,000	8	11.3
60,000	6	8.5
65,000	1	1.4
70,000	1	1.4
80,000	2	2.8
90,000	1	1.4
100,000	7	9.9
120,000	3	4.2
130,000	1	1.4
150,000	7	9.9
180,000	1	1.4
190,000	1	1.4
240,000	1	1.4
250,000	2	2.8
250,472	1	1.4
270,000	1	1.4
300,000	3	4.2
350,000	1	1.4
400,000	1	1.4
450,000	1	1.4
700,000	1	1.4
989,000	1	1.4
1,000,000	1	1.4
합계	71	100
모름/무응답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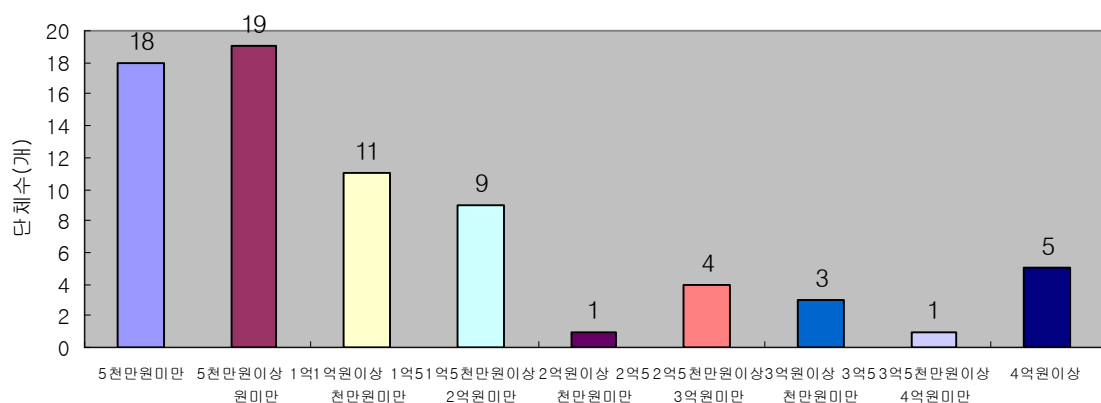
<표3-5> 연간예산_예술활동경비

(단위: 개, %)

	극단수	비율
5,000만원 미만	18	25.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9	26.8
1억원 이상 1억 5,000만원 미만	11	15.5
1억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9	12.7
2억원 이상 2억 5,000만원 미만	1	1.4
2억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4	5.6
3억원 이상 3억 5,000만원 미만	3	4.2
3억 5,000만원 4억원 미만	1	1.4
4억원 이상	5	7.0
합계	71	100.0
모름/무응답	6	

<표 3-6> 연간예산규모_예술활동경비 현황

극단이 예술 활동으로 연간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9,455만원으로 1억원 미만이 전체의 52.2%를 차지하고 있었다.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26.8%), 5,000만원 미만(25.4%), 1억원이상 1억5,000만원미만(15.5%), 1억5,000만원이상 2억원미만(1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연간 예산규모_예술활동경비 현황

② 운영경비

(단위: 천원, 개, %)

운영경비	극단수	비율
500	1	1.5
1,200	1	1.5
2,000	2	3.0
3,000	3	4.5
3,500	1	1.5
5,000	2	3.0
6,000	2	3.0
8,000	1	1.5
10,000	7	10.4
12,000	3	4.5
15,000	4	6.0
20,000	10	14.9
21,175	1	1.5
25,000	2	3.0
30,000	4	6.0
40,000	1	1.5
50,000	6	9.0
60,000	4	6.0
70,000	1	1.5
80,000	1	1.5
100,000	1	1.5
105,000	1	1.5
130,000	1	1.5
150,000	4	6.0
578,000	1	1.5
600,000	2	3.0
합계	67	100
모름/무응답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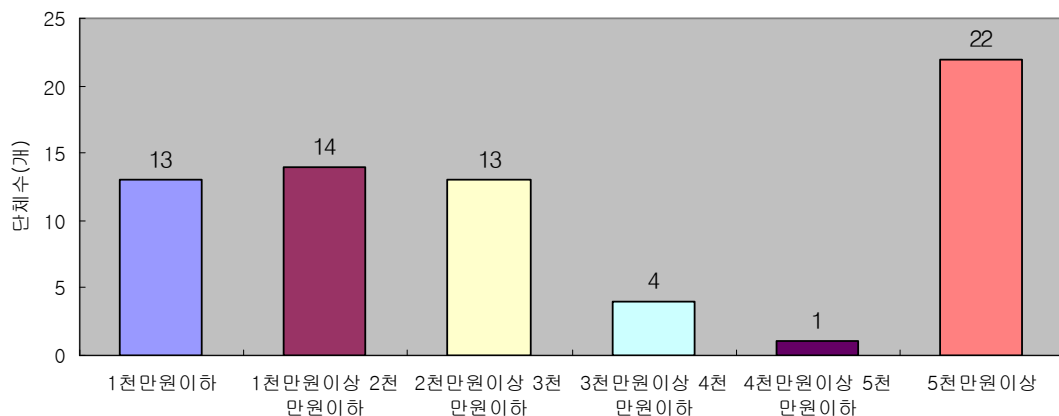
<표3-7> 연간예산_운영경비

(단위: 개, %)

	극단수	비율
1,000만원 미만	13	19.4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4	20.9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	19.4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4	6.0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	1.5
5,000만원 이상	22	32.8
합계	67	100.0
모름/무응답	10	

<표3-8> 연간예산규모_운영경비 현황

연간 운영경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6,042만원이었다. 3,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9.7%임에도 평균 비용이 6,000만원을 넘고 있는데, 이는 5,000만원 이상으로 운영경비를 지출한다는 단체들이 전체의 32.8%를 차지하면서 평균 운영경비를 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2> 연간 예산규모_운영경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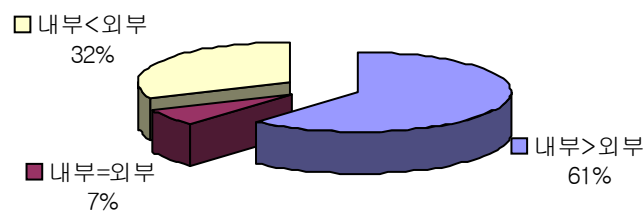
5) 예산조달방식

연간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조달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연간 예산 100% 중 자체 조달과 외부조달이 어떤 비율로 나누어지는 지 물었다. 이때 자체조달은 자체수입을, 외부조달은 공공기금과 민간지원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자체조달비율과 외부조달비율은 반비례 관계로, 자체조달비율이 높을수록 외부조달(공공기금과 민간지원) 비율은 낮다. 자체조달비율이 낮을수록 외부조달 즉 공공기금과 민간 지원을 통한 외부조달비율이 높고, 이들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단위: %)

구분	비율	
자체>외부	61.7	61.7
자체=외부	6.8	38.3
자체<외부	31.5	
전체	100.0	100.0

<표 3-9> 예산조달_ 조달방식 개괄



<그림 3-23> 예산조달_ 조달방식 개괄

전체 극단의 61.7%가 공공기금이나 민간지원보다는 자체수입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고 있고, 31.5%는 자체수입이 아닌 외부조달방식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고 있었다.

(단위: %, 개,%)

자체	외부	극단수	비율
0	100	1	1.4
10	90	2	2.7
15	85	1	1.4
20	80	7	9.6
25	75	1	1.4
30	70	6	8.2
40	60	5	6.8
50	50	5	6.8
60	40	8	11.0
65	35	2	2.7
70	30	9	12.3
75	25	2	2.7
80	20	12	16.4
85	15	1	1.4
87	13	1	1.4
90	10	2	2.7
93	17	1	1.4
95	5	1	1.4
100	0	6	8.2
합계		73	100
모름/무응답		4	

<표 3-10> 예산조달_자체 및 외부 조달 비율

극단이 예산을 조달 할 때 자체적으로 80%의 예산을 충당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12.3%), 60%(11.0%) 순으로 나타났다.

6) 가맹단체 현황

극단이 현재 가입한 단체 중에서는 한국연극협회가 가장 많았다. 기타로는 한국 공연프로듀서협회, 서울연극협회, 민예총, 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한국인형극예술가협회 등의 응답이 있었다. 전체 극단의 83.1%가 적어도 한개 이상의 협회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단위: %)

구분		극단수
한국연극협회		56
한국민족극운동협회		1
한국아동극청소년협회		3
기타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1
	서울연극협회	1
	민예총	2
	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1
	한국인형극예술가협회	1

<표 3-11> 가맹단체 현황

* 무응답/ 미가입 단체 제외

* 중복응답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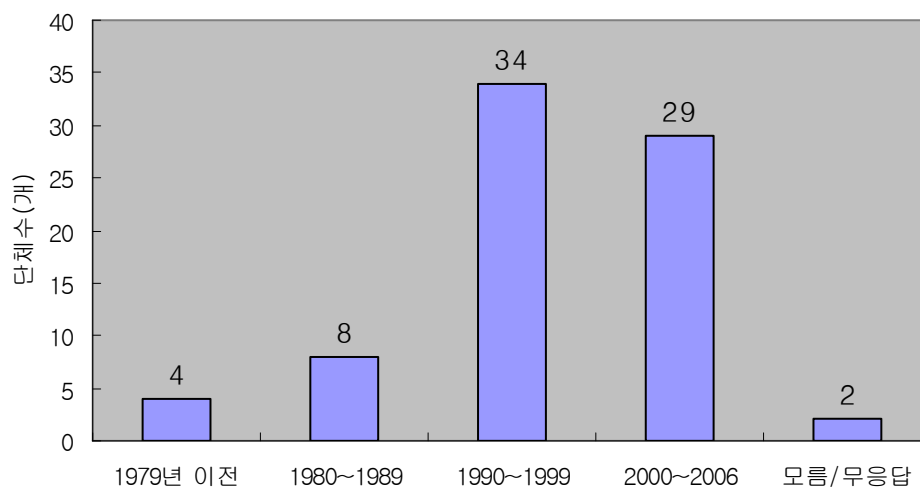
7) 창립연도로 본 극단 현황

전체의 81.9%인 63개 극단이 1990년대 이후에 창립된 극단이며, 1980년대 이전에 창립한 극단은 4개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6년 이내 창립된 신생 극단이 전체의 37.7%나 된다.

(단위: 개, %)

구분	극단수	비율
1979년 이전	4	5.2
1980 ~ 1989	8	10.4
1990 ~ 1999	34	44.2
2000 ~ 2006	29	37.7
모름/무응답	2	2.6
전체	77	100.0

<표3-12> 창립연도로 본 극단 현황



<그림 3-24> 창립연도로 본 단체 현황

2. 극단 인력현황

극단 인력 현황에 대해 응답한 사례수는 77개 극단이며, 남/여 모두 포함하여 1,252명으로 조사되었다.

1) 성별 분야별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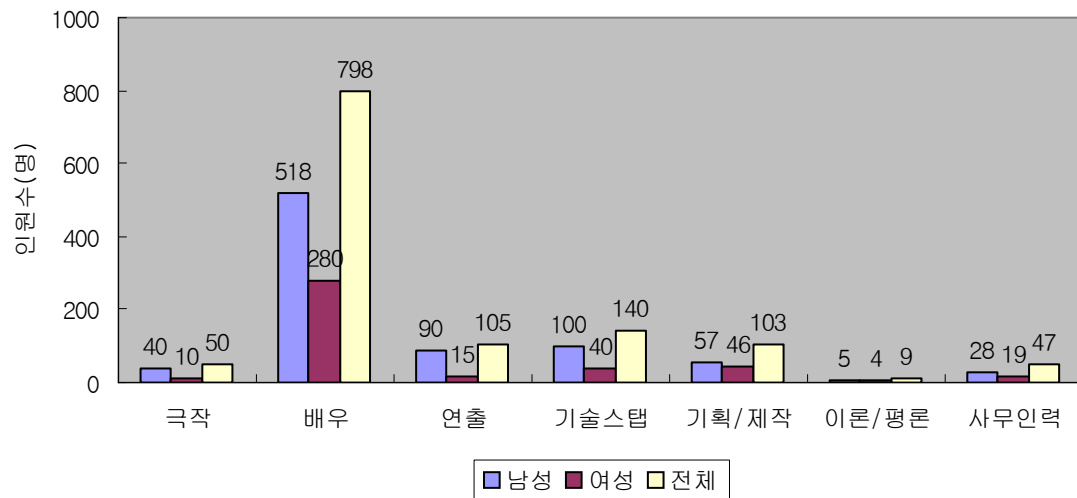
성별 구성 현황을 보면 남성이 838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33%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 성별현황을 보면 전 영역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은데 특히 연출부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6.14배, 극작부분에서는 4배 더 많았고, 기술스태프부분은 남성이 여성보다 2.4배 더 많다.

분야별 구성현황은 배우부분이 798명으로 63.7%, 기술스태프부분이 140명으로 11.2%, 연출부분이 103명으로 8.4% 순으로 나타난다. 배우> 기술스태프 >연출 > 기획/제작 >극작 >사무인력 >이론/평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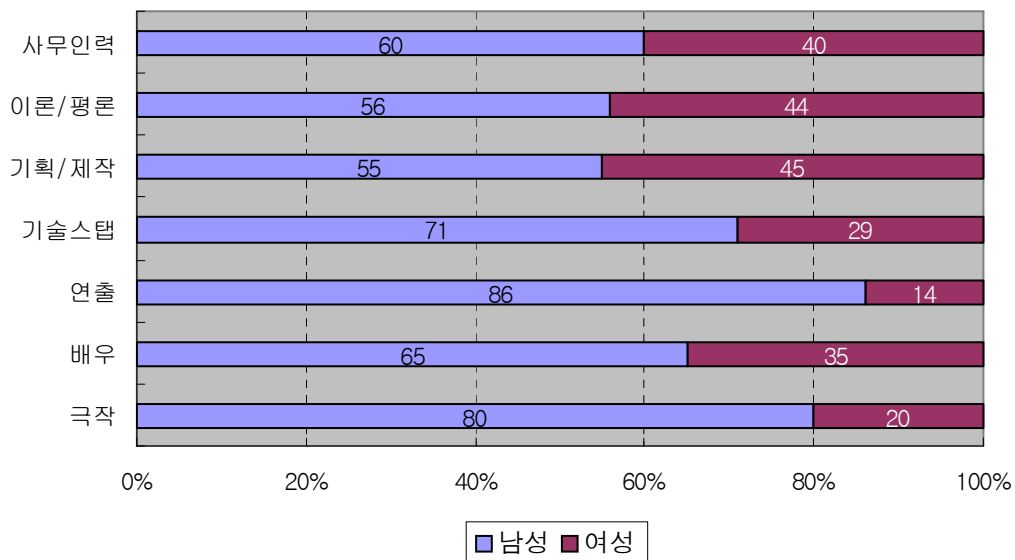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남성	비율	여성	비율	소계	비율
극작	40	80	10	20	50	4.0
배우	518	65	280	35	798	63.7
연출	90	86	15	14	105	8.4
기술스텝	100	71	40	29	140	11.2
기획/제작	57	55	46	45	103	8.2
이론/평론	5	56	4	44	9	0.7
사무인력	28	60	19	40	47	3.8
합계	838	67	414	33	1,252	100

<표3-13> 성별 분야별 인력현황



<그림 3-25> 분야별 성별 인력현황



<그림 3-26> 분야별 남성/여성 인력 구성비

2) 연령별 성별 인력 현황

구분		합계	남성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극작	인력	40	6	15	11	4	4
	비율	100	15	38	28	10	10
배우	인력	518	188	185	97	37	11
	비율	100	36	36	19	7	2
연출	인력	90	18	27	29	13	3
	비율	100	20	30	32	14	3
기술스텝	인력	100	29	51	15	4	1
	비율	100	29	51	15	4	1
기획/제작	인력	57	16	30	8	3	0
	비율	100	28	53	14	5	0
이론/평론	인력	5	0	1	3	1	0
	비율	100	0	20	60	20	0
사무인력	인력	28	18	9	1	0	0
	비율	100	64	32	4	0	0
합계	인력	838	275	318	164	62	19
	비율	100	33	38	20	7	2

<표 3-14> 연령별 성별 인력현황_남성

극단에 속한 838명 남성 인력의 연령별 분포 현황을 보면 30대가 전체의 38%, 20대가 33%, 40대가 20%로 나타났다. 30대>20대>40대>50대>60대 이상

업무분야로 보면 극작, 기술스텝, 기획/제작부분에서는 30대가, 배우 부분은 20대와 30대가, 연출 및 이론/평론 부분은 40대가, 사무인력 부분은 20대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작_ 30대> 40대> 20대 >50대/60대 이상

배우_ 20대/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연출_ 40대> 30대> 20대> 50대> 60대 이상

기술스텝_ 30대> 2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기획/제작_ 30대> 20대> 40대> 50대

이론/평론_ 40대> 30대/ 50대

사무인력_ 20대> 30대> 40대

구분		합계	여성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극작	인력	10	0	5	2	3	0
	비율	100	0	50	20	30	0
배우	인력	280	129	103	36	10	2
	비율	100	46	37	13	4	1
연출	인력	15	5	7	2	1	0
	비율	100	33	47	13	7	0
기술스텝	인력	40	19	14	6	1	0
	비율	100	48	35	15	3	0
기획/제작	인력	46	17	17	9	2	1
	비율	100	37	37	20	4	2
이론/평론	인력	4	0	1	2	1	0
	비율	100	0	25	50	25	0
사무인력	인력	19	8	7	4	0	0
	비율	100	42	37	21	0	0
합계	인력	414	178	154	61	18	3
	비율	100	43	37	15	4	1

<표 3-15> 연령별 성별 인력현황_여성

극단에 속한 414명 여성인력의 연령별 분포현황은 30대가 전체의 38%를 차지했던 것과는 다르게 20대가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20대(43%)> 30대(37%) > 40대(15%) > 50대(4%)> 60대 이상(1%)

업무분야로 보면 배우, 기술스텝, 기획/제작, 사무인력 부분에서는 20대가, 극작 및 연출부분은 30대가, 이론/평론 부분은 40대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작_ 30대> 50대>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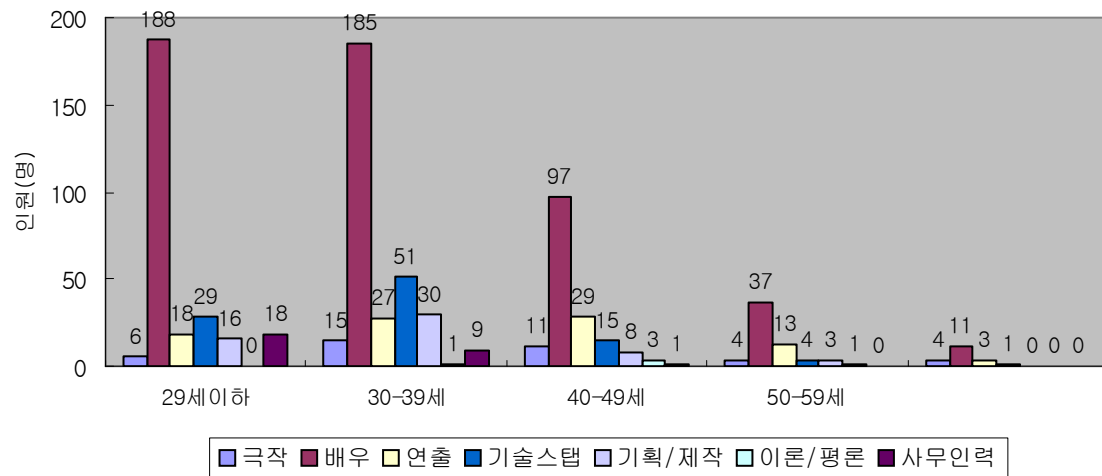
배우_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기술스텝_ 20대> 30대> 40대> 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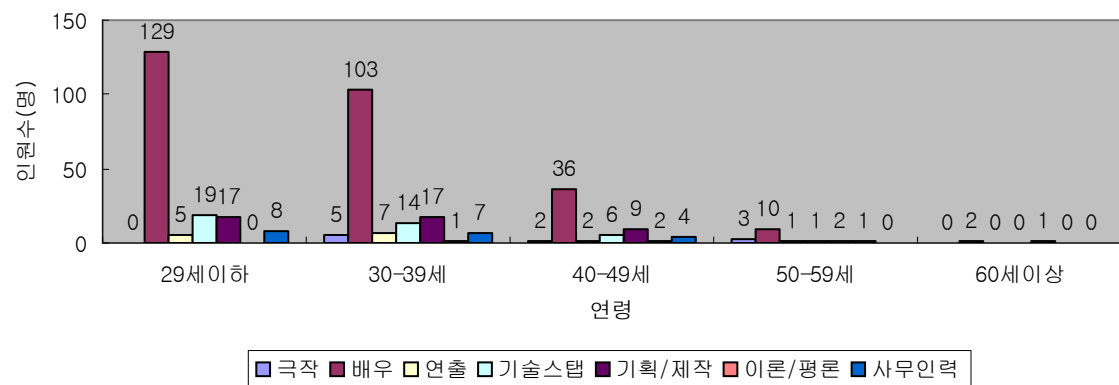
기획/제작_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론/평론_ 40대> 30대, 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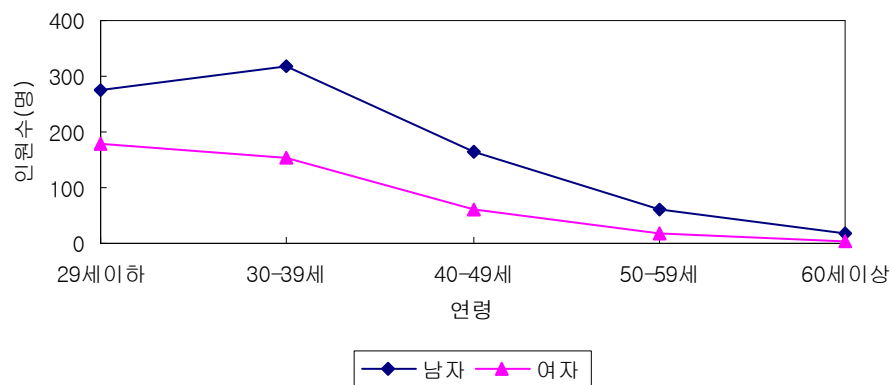
사무인력_ 20대> 30대> 40대



<그림 3-27> 연령별 분야별 인력 현황_남성



<그림 3-28> 연령별 분야별 인력 현황_여성



<그림 3-29> 연령별 성별 현황

77개 극단에 종사하는 1,252명의 성별 분포현황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전 연령대에 걸쳐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2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0대가 가장 많지만 여성은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다.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과 양육 등의 사회적인 이유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며 연극생태계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 여성 모두 30대에서 40대로 이동 시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단위: 명)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합계
남성	275	318	164	62	19	838
여성	178	154	61	18	3	414
인력	453	472	225	80	22	1252
비율	36.2	37.7	18.0	6.4	1.8	100.0

<표 3-16> 연령별 성별 현황

3. 공연 활동 현황 개괄

1) 총 공연 작품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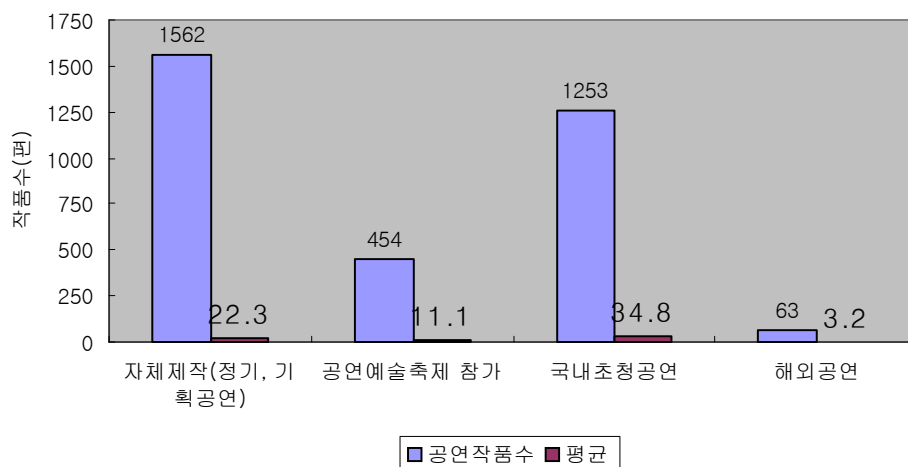
극단(77개)의 총 공연작품수는 3,362편이며, 단체 당 평균 43.7편의 공연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공연작품수에서는 자체제작(정기, 기획공연) 공연 1,562편(평균 22.3편), 국내초청공연 1,253편(평균 34.8편), 공연예술축제 참가 공연 454편(평균 11.1편), 해외공연 63편(평균 3.2편)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편)

구분	극단수	작품수	평균
자체제작(정기, 기획공연)	70	1,562	22.3
공연예술축제 참가	41	454	11.1
국내초청공연	36	1,253	34.8
해외공연	20	63	3.2
전체		3,362	43.7

<표 3-17> 총 공연 실적

- * 총 공연작품 수는 설립(창립) 이후의 모든 공연 작품의 수를 말함
- * 작품수는 77개 극단 중 해당항목의 공연경력이 있다고 답한 극단이 제작한수
- * 평균은 해당 항목의 공연경력이 있다고 답한 단체의 평균 작품 수
- * 국내초청공연은 일반초청공연 및 전문연 순회 사업, 각종 행사참여 등을 의미



<그림 3-30> 총 공연실적

2) 자체 제작(정기, 기획) 공연 현황

① 공연 일수 및 공연 횟수 현황

최근 2년간의 자체 제작공연 현황을 살펴보면 총 공연 작품수는 178편, 총 공연일수는 6,354일, 공연 횟수는 8,280회로 나타났다. 극단별 평균적으로 5주의 기간동안 47회의 공연을 하고 있었다.

작품수	공연일수 (평균)	공연횟수 (평균)
178	6,354	8,280
	(36일)	(47회)

<표 3-18> 자체제작공연 현황_ 공연일수 및 공연횟수

*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극단 제외

* 공연 상연 기간 : 2005년 1월 1일~ 2006년 10월 31일

② 관객현황

총 관객수는 72만 1,339명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유료관객은 55만 766명(전체의 76%)이고 무료관객은 17만 573명(전체의 24%)로 나타났다. 회당평균 유료관객수는 67명, 회당 평균 무료관객은 21명이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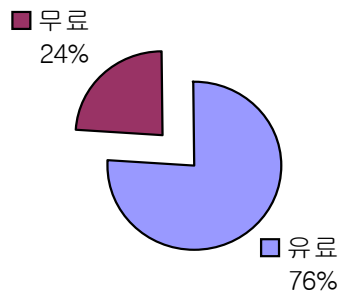
작품수	총 관객수 (회당평균)	유료관객수 (회당 평균)	무료관객수 (회당 평균)
178	721,339	550,766	170,573
	(88명)	(67명)	(21명)

<표 3-19> 자체제작공연 현황_ 관객수

*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극단 제외

* 공연 상연 기간 : 2005년 1월 1일~ 2006년 10월 31일

9) 2005 공연예술실태조사에서 특히 연극단체가 타 장르에 비해 유료관객의 비율이(61.7%/ 무료관객비율 30.1%)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극단체 이외 유료관객의 비율을 장르별로 보면 양악(19%), 무용(8.8%), 복합장르(5.6%), 국악(4.9%)이었다. 연극과 달리 이들장르에서는 무료관객이 유료관객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 자체제작공연 유료/무료 관객구성

③ 수입 현황

자체제작공연의 최근 2년간의 총 수입은 108억원으로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장수입 86억원(81%)이고, 그 다음으로 각종 기금 13억원(12%), 협찬금 4억 7,000만원(4%), 기타수입 3억 2,000만원(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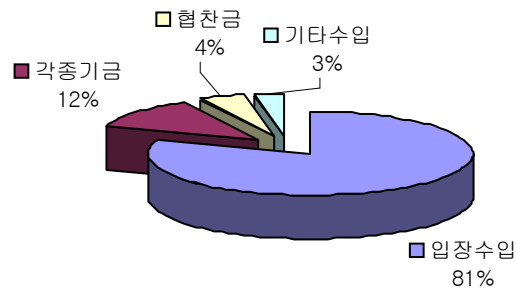
작품 당 수입총액은 6,069만원으로 입장수입 4,880만원, 각종기금 737만원, 협찬금 266만원, 기타수입 182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원, %, 원)

구분	입장수입	각종기금	협찬금	기타수입	합계
금액	8,691,194,000	1,313,300,000	474,522,000	324,591,000	10,804,907,000
비율	81	12	4	3	100
평균	48,826,933	7,378,090	2,665,854	1,823,545	60,694,421

<표 3-20> 자체제작공연 현황_수입현황

- * 협찬금은 기업 및 개인 후원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
- * 기타수입은 자체 자금을 제외한 기념품 판매 등의 기타 모든 수입을 의미
- * 기타수입내용_ 공연팸플렛판매, 기념품판매, 페스티벌 지원금



<그림 3-32 > 자체 제작공연_ 수입 재원별 구성

④ 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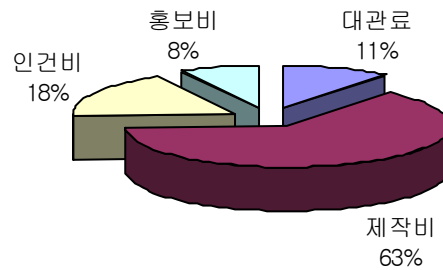
자체제작공연 178개 작품의 지출현황을 보면 작품 당 평균 1억 4,590만원으로, 세부 내역에서는 제작비로 9,227만원(63%), 인건비로 2,595만원(18%), 대관료 1,573만원(11%), 홍보비로 1,196만원(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품1편당 수입은 6,069만원, 지출은 1억 4,590만원으로 수입에 비해 지출이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원, %, 원)

구분	대관료	제작비	인건비	홍보비	합계
금액	2,801,373,000	16,424,956,000	4,620,295,000	2,130,032,000	25,976,656,000
비율	11	63	18	8	100
평균	15,738,051	92,275,034	25,956,713	11,966,472	145,936,270

<표 3-21> 자체제작공연 현황_ 지출현황



<그림 3-33> 자체제작공연_지출현황

3) 공연예술축제 참가 공연 현황

① 공연 일수 및 공연 횟수 현황

최근 2년간 공연예술축제 참가를 통한 공연현황을 살펴보면 총 공연작품수는 53편으로 총 공연일수는 120일, 총 공연횟수는 184회로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작품 당 2.3일 동안 3.5회의 공연을 하고 있다.

(단위: 편, 일, 회)

작품수	공연일수 (평균)	공연횟수 (평균)
53	120	184
	(2.3)	(3.5)

<표 3-22> 공연예술축제 참가 공연 현황_ 공연일수 및 공연횟수

*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극단 제외

* 공연 상연 기간: 2005년 1월 1일~ 2006년 10월 31일

② 수입 및 지출 현황

공연예술 축제 참가공연의 최근 2년간의 총 수입은 4억6,668만원으로 그 가운데 참가사례비가 전체의 54.15%인 2억 5,280만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입장수입 9,588만원(20.54%), 각종기금 9,550만원(20.45%), 기타수입 2,270만원(4.86%) 순이었다.

작품 1편당 수입은 880만원으로 세부 현황을 보면 참가사례 476만원, 입장수입 2180만원, 각종기금 180만원, 기타수입 42만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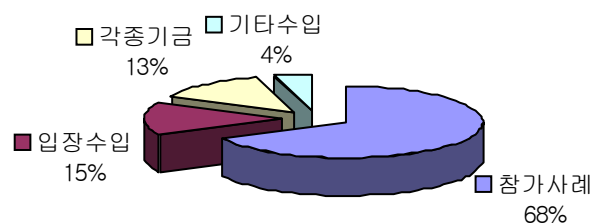
작품1편당 수입과 지출은 수입이 880만원, 지출이 1,101만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약간 상회했다.

(단위:원, %, 원)

구분	수입					지출
	참가사례	입장수입	각종기금	기타수입	합계	
금액	252,800,000	95,880,000	95,500,000	22,700,000	466,880,000	583,960,000
비율	54.15	20.54	20.45	4.86	100.0	
평균	4,769,811	1,809,057	1,801,887	428,302	8,809,057	11,018,113

<표 3-23> 공연예술축제 참가 공연 현황_ 수입 및 지출현황

- * 기타수입은 자체자금을 제외한 협찬금 등 기타 모든 수입을 의미
- * 기타수입내용_공연팜플렛판매, 협찬금, 상금, 체재비



<그림 3-34 > 공연예술축제참가 수입 재원별구성

③ 참가 공연예술축제 현황

페스티벌 명	참가작품수
거창 국제연극제	7
서울국제공연예술제	5
춘천인형극제	5
고마나루향토연극제	4
서울연극제	4
춘천마임축제	4
밀양연극제	2
안동예술제	2
전남연극제	2
핀터 페스티벌	1
가족음악극축제	1
경산예술제	1
과천연극제	1
대구호리연극제	1
보령해변예술축제	1
부산국제연극제	1
부산연극제	1
서울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	1
수원화성국제연극제	1
아시테지 겨울연극제	1
안산문화예술제	1
통영소극장축제	1
신라문화제	1
춘천국제연극제	1
포항바다국제연극제	1
한일아동청소년연극제	1
Pre-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1
	53

<표 3-24> 참가 공연예술축제 현황

*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극단 제외

4) 국내초청공연 현황

① 공연일수 및 공연 횟수 현황

국내초청공연으로 최근 2년간 41편의 작품이 올려졌으며, 총 공연일수는 319일, 총 공연횟수는 540회로 나타났다. 작품당 평균 7.8일, 13.2회의 공연을 하였다.

(단위: 편, 일, 회)

작품수	공연일수 (평균)	공연횟수 (평균)
41	319	540
	(7.8)	(13.2)

<표 3-25 > 국내초청공연 현황_ 공연일수 및 공연횟수

*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극단 제외

* 공연 상연 기간: 2005년 1월 1일~ 2006년 10월 31일

② 수입 및 지출 현황

국내 초청공연으로 작품당 수입총액은 5,458만원이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초청사례로 4,538만원(83.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입장수입이 725만원(13.3%), 각종기금 146만원(2.7%), 기타수입 48만원(0.9%) 순으로 나타났다.

작품당 지출 총액은 3,324만원으로, 작품당 수입 5,458만원이 더 높았다.

(단위: 원,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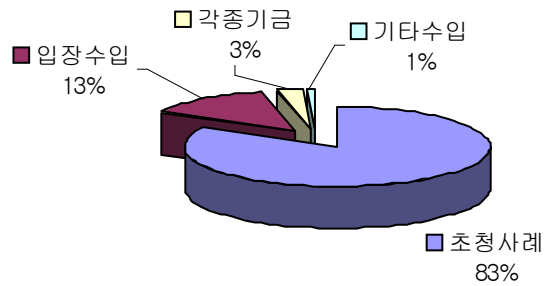
구분	수입					지출
	초청사례	입장수입	각종기금	기타수입	합계	
금액	1,860,600,000	297,284,000	60,000,000	20,000,000	2,237,884,000	1,363,184,000
비율	83.1	13.3	2.7	0.9	100.0	
평균	45,380,488	7,250,829	1,463,415	487,805	54,582,537	33,248,390

<표 3-26 > 국내초청공연 현황_ 수입 및 지출현황

* 기타수입은 자체자금을 제외한 협찬금 등 기타 모든 수입을 의미

* 전문연사업의 경우 전문연기금은 초청사례에 포함

* 기타수입내용_ 초청단체의 진행비, 협찬금



<그림3-35> 국내초청공연 수입재원별 구성

5) 해외공연 현황

① 공연일수 및 공연횟수 현황

해외공연 현황을 보면 총 공연작품수는 25편으로, 총 공연일수는 218일, 총 공연횟수는 245회로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8.7일 동안 9.8회 공연하고 있다.

(단위: 편, 일, 회)

작품수	공연일수 (평균)	공연횟수 (평균)
25	218 (8.7)	245 (9.8)

<표 3-27> 해외공연현황_ 공연일수 및 공연횟수

*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극단 제외

* 공연상연기간: 2005년 1월 1일 ~ 2006년 10월 31일

② 수입 및 지출현황

해외공연을 통한 총 수입은 작품당 2,388만원으로 그 가운데 입장수입이 910만원(38%)로 가장 비중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초청사례 209만원(35%), 각종기금 486만원(20%), 기타수입 152만원(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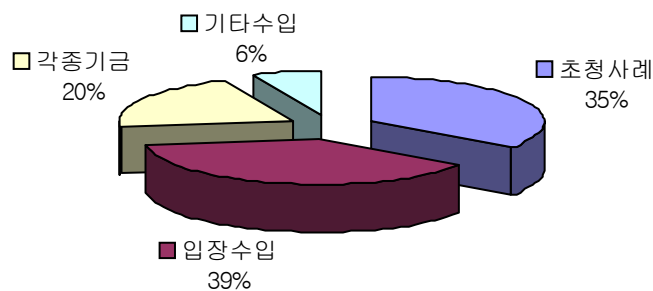
작품당 평균 지출은 2,415만원이었다.

(단위: 원, %, 원)

구분	수입					지출
	초청사례	입장수입	각종기금	기타수입	합계	
금액	209,700,000	227,700,000	121,650,000	38,000,000	597,050,000	603,775,000
비율	35	38	20	6	100.0	
평균	8,388,000	9,108,000	4,866,000	1,520,000	23,882,000	24,151,000

<표 3-28> 해외공연현황_ 수입 및 지출현황

- * 기타수입은 자체자금을 제외한 협찬금 등 기타 모든 수입을 의미
- * 기타수입내용_ 협찬금, 후원금, 체재비



<그림3-36> 해외공연_수입재원별 구성

③ 제작형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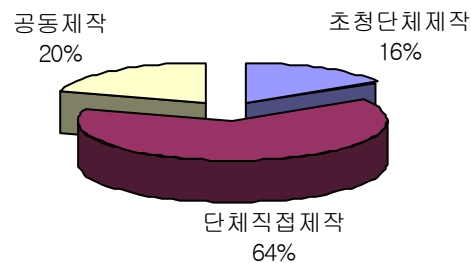
해외공연제작의 형태를 보면 총 25편 작품 중에서 공연단체(극단)가 직접 제작한 경우가 16작품 64%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공동제작이 20%, 초청단체의 제작이 16% 순이었다.

(단위: 편, %)

구분	제작형태			합계
	초청단체제작	단체직접제작	공동제작	
작품수	4	16	5	25
비율	16	64	20	100

<표 3-29> 해외공연현황_ 제작형태

*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극단 제외



<그림3-37> 해외공연_제작형태

④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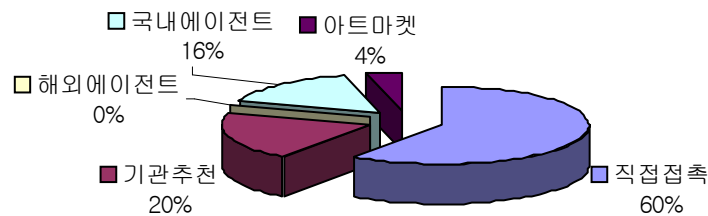
해외공연을 추진하는 채널로는 직접접촉이 15개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관의 추천 5개(20%), 국내에이전트 4개(16%), 아트마켓 1개(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에이전트를 통한 해외공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편, %)

구분	추진방법				
	직접접촉	기관추천	해외에이전트	국내에이전트	아트마켓
작품수	15	5	0	4	1
비율	60	20	0	16	4

<표 3-30> 해외공연현황_ 추진방법

*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극단 제외



<그림3-38> 해외공연_추진방법

⑤ 진출국가 현황

해외진출공연의 상대 국가현황을 보면 18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일본이 10편, 독일이 4편, 중국, 프랑스 각 3편으로 많았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대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진출 횟수
일본	10
독일	4
중국	3
프랑스	3
러시아	2
루마니아	2
몰도바	2
미국	2
폴란드	2
노르웨이	1
대만	1
몽골	1
스웨덴	1
스위스	1
싱가포르	1
영국	1
이태리	1
체코	1
	39

<표 3-31> 해외공연현황_ 진출국가 현황¹⁾

	해외페스티벌명
1	국제아동청소년극 페스티벌오키나와
2	도토리퍼포밍아트 페스티벌
3	독일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4	러시아 고전국제연극제
5	미모스국제마임 페스티벌
6	브로츠와프 페스티벌
7	아비뇽페스티벌 오프
8	에딘버러프린지
9	오폴레씨어터 페스티벌
10	요코하마국제연극제
11	전일본연극 페스티벌
12	제51회 국제민족페스티벌
13	프리텍-미스텍축제, 스트라니츠축제
14	한일아동청소년연극제
15	한일우정의해 기념페스티벌
16	ACT페스티벌
17	MANoVER World cup
18	Sommerwerf Theater Festival
19	The BITEI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20	The Sibiu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표 3-32> 해외공연현황_ 초청 페스티벌 현황

*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극단 제외

4. 지원금 수혜현황

1) 지원금(기금)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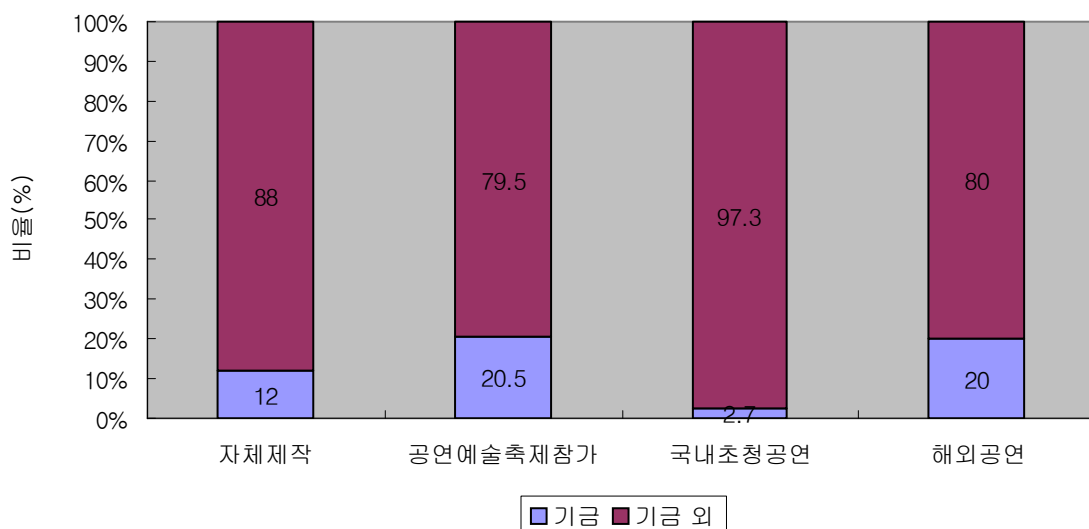
지난 2년 동안(2005.1.1 ~2006.10.31) 연극생태계를 위한 각종 기관으로부터의 기금 수혜 실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전체 수입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공연예술축제 참가 공연이 20.5%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해외공연 20%, 자체제작공연 12%, 국내초청공연 2.7%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초청공연의 경우 전문연기금은 초청사례에 포함되어 수입 중 초청사례비의 비율이 전체의 83%나 된다. 전문연기금을 초청사례가 아닌 기금으로 포함했을 경우 현재의 2.7%에서 상당 부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자체제작	공연예술축제참가	국내초청공연	해외공연
비율	12	20.5	2.7	20

<표 3-33> 공연형태별 지원금 의존 비율



<그림 3-39> 제작형태별 수입내 기금의 비율

2) 지원금 수혜현황 : 지원기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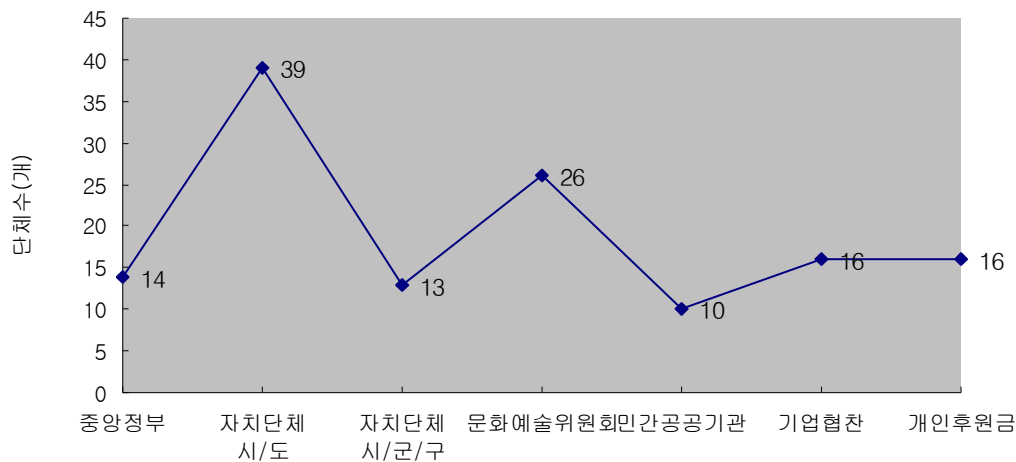
지난 2년 동안 중앙정부, 자치단체, 문화예술위원회, 민간공공기관, 기업협찬 그리고 개인 후원자로부터 지원금 수혜 실태를 조사하였다.

기관별 수혜비율을 보면 자치단체 시/도 27.9%, 문화예술위원회 18.6%, 민간공공기관 14.7%, 기업협찬 및 개인후원금 11.4%, 중앙정부 10%, 자치단체 시/군/구 9.3%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개, %)

	중앙정부	자치단체 시/도	자치단체 시/군/구	문화예술 위원회	민간공공 기관	기업협찬	개인 후원금	합계
작품수	14	39	13	26	10	16	16	134
비율	10.0	27.9	9.3	18.6	14.7	11.4	11.4	100.0

<표3-34> 지원금 수혜현황_지원기관별



<그림 3-40> 지원금 수혜현황_ 지원기관별

자치단체 시/도 > 문화예술위원회 > 기업협찬/ 개인후원금 > 중앙정부 > 자치단체 시/군/구 > 민간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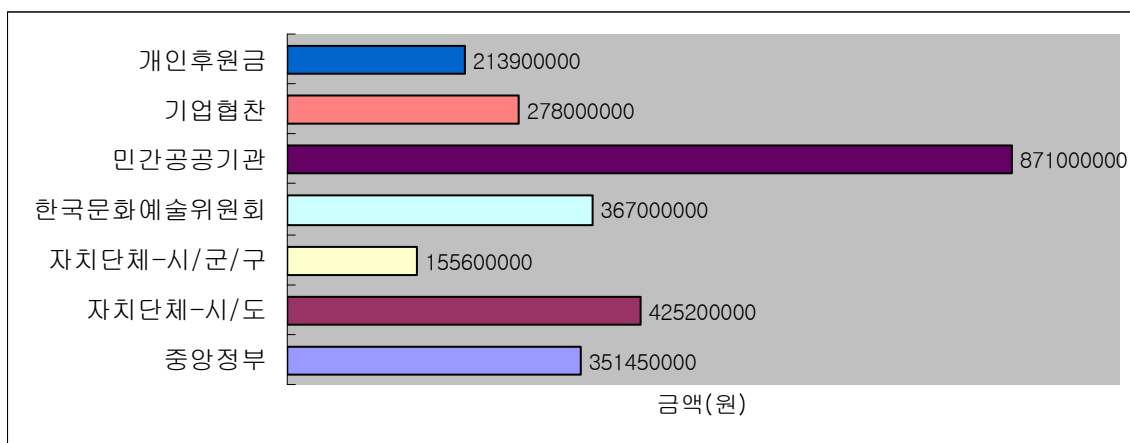
지난 2년 동안 지원금을 받은 134개의 공연에 대한 총 지원규모는 26억 6,215만원으로 그 중 민간공공기관 지원금이 8억 7,100만원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치단체 시/도 4억 2520만원(16.0%), 문화예술위원회 3억 6,700만원(13.8%), 중앙정부 3억 5,145만원(13.2%), 개인후원금 2억 1,390만원(8%), 자치단체 시/군/구 1억 5,560만원(5.8%)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원, %)

	중앙정부	자치단체-시/도	자치단체-시/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금액	351,450,000	425,200,000	155,600,000	367,000,000
비율	13.2	16.0	5.8	13.8

	민간공공기관	기업협찬	개인후원금	합계
금액	871,000,000	278,000,000	213,900,000	2,662,150,000
비율	32.7	10.4	8.0	100.0

<표3-35> 지원금 수혜현황_기관별 지원금액현황



<그림 3-41> 지원금 수혜현황_ 기관별 지원금 금액 현황

민간공공기관 > 자치단체 시/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중앙정부 > 기업협찬 > 자치단체 시/군/구

<표3-34>지원금 수혜현황_지원기관별 과 비교해보면 민간공공기관의 작품수는 최하위권이나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이 특이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전문연기금이 이 부분의 98.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단위: 원, %)

	지원금액	비율
전국문예회관연합회	858,000,000	98.5
기타 기관	13,000,000	1.5

<표3-36> 지원금 세부현황_ 민간공공기관 세부 구성

3) 지원기관별 세부 현황

① 중앙정부(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최근 2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20.3%, ‘받은 경험이 없다’가 79.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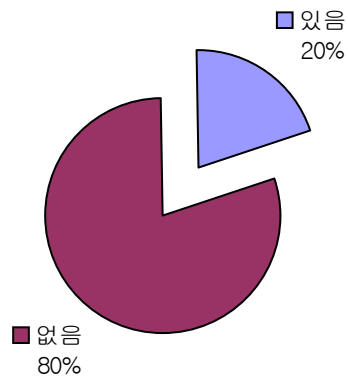
(단위: 편, %)

	작품수	비율
있음	14	20.3
없음	55	79.7
합계	69	100.0

<표3-37> 지원금 수혜현황_ 중앙정부

* 모름/무응답 제외

지원처와 지원사업으로는 문화관광부의 무대지원사업, 문화관광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문화관광부 국고보조금사업이 있었다.



<그림3-42> 중앙정부 지원금 수혜현황

② 자치단체 시/도 (지역문화재단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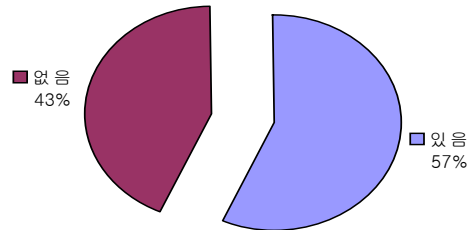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작품이 56.5%, 그렇지 못한 작품이 43.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단위: 편, %)

	작품수	비율
있음	39	56.5
없음	30	43.5
합계	69	100.0

<표3-38> 지원금 수혜현황_ 자치단체 시/도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3-43> 자치단체_시/도 지원금 수혜현황

지원처	지원사업명
강원도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지원
강원문화재단	공연제작지원
경기도 고양문화재단	청소년연극
경기문화재단	일반공모
	경기문예진흥기금
경주문화원	신라문화제
대구광역시	무대지원사업
	무대공연제작지원
대전광역시	문예진흥기금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스프링페스티벌
서울문화재단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행사
	무대작품공연지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
	지역공간활성화
서울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공연예술작품 해외진출 지원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예진흥기금
인천문화재단	동아리축제
	문예진흥기금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
충청북도	무대공연제작지원

<표3-39> 자치단체 시/도 지원금_ 지원처 및 지원사업

* 모름/무응답 제외

③ 자치단체-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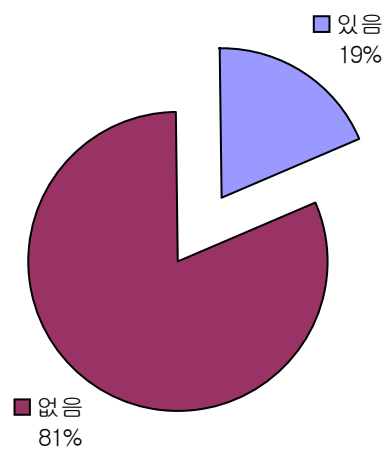
최근 2년간 자치단체 시/군/구로부터 지원경험이 있는 작품이 18.8%, 지원경험이 없는 작품이 81.2%로 나타났다.

(단위: 편, %)

	작품수	비율
있음	13	18.8
없음	56	81.2
합계	69	100.0

<표3-40> 지원금 수혜현황_ 자치단체 시/군/구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44> 자치단체 시/군/구 지원금 수혜현황

지원처	지원사업명
경산시(경북)	경산예술제
고양시	정기공연및추계공연
부산광역시	찾아가는문화활동
	무대지원사업
안산시	문예진흥지원금
인천남구청	구비보조금
인천서구청	소외계층시민문화활동
제천시	충북연극제참가
종로구	학교문화예술교육
춘천시	문화예술육성기금
충주시	무대공연제작지원작
홍성군	문예진흥기금

<표3-41> 자치단체 시/군/구 지원금_ 지원처 및 지원사업

* 모름/무응답 제외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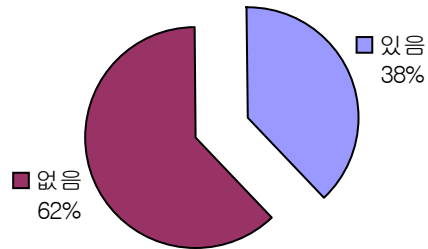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작품이 37.7%, 그렇지 않은 작품이 62.3%를 차지하였다.

(단위: 편, %)

	작품수	비율
있음	26	37.7
없음	43	62.3
합계	69	100.0

<표3-42> 지원금 수혜현황_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4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원금 수혜현황

지원사업명
계기성지원
국제교류지원
문예진흥기금기부금사업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사후지원사업
소외지역순회
신나는 예술여행
신진연출가지원사업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사업
창작프로그램지원
창작활성화사후지원

<표3-43> 한국문화예술위원회_ 지원사업

⑤ 민간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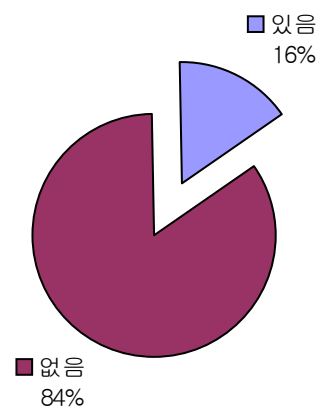
민간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수혜를 받아 제작한 작품이 14.7%, 그렇지 않은 작품이 85.3%를 차지하였다.

(단위: 편, %)

	작품수	비율
있음	10	14.7
없음	58	85.3
합계	68	100.0

<표3-44> 지원금 수혜현황_ 민간공공기관

- * 국제교류재단, 금호재단, 전문연 등
-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3-46> 민간공공기관_지원금 수혜현황

지원처	지원사업명
금호재단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프로그램
	지역순회공연
	복권기금사업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예술사업지원 연극부문

<표3-45> 민간공공기관_ 지원처 및 지원사업

* 모름/무응답 제외

⑥ 기업협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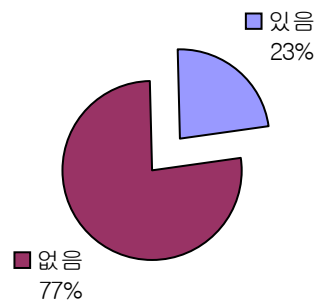
지난 2년간 기업협찬을 받은 적이 있는 작품이 23.2%, 그렇지 않은 작품이 76.8%를 차지하고 있었다.

(단위: 편, %)

	작품수	비율
있음	16	23.2
없음	53	76.8
합계	69	100.0

<표3-46> 지원금 수혜현황_ 기업협찬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47> 기업협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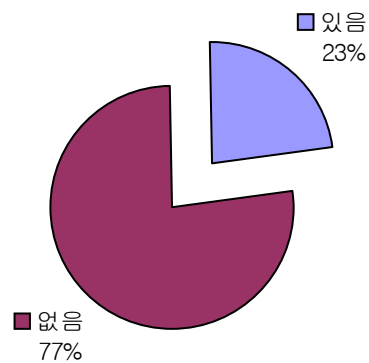
⑦ 개인후원금

‘개인 후원금을 받은 적 있다’가 23.2%, ‘그렇지 않다’가 76.8%를 차지하였다.

(단위: 편, %)

	작품수	비율
있음	16	23.2
없음	53	76.8
합계	69	100.0

<표3-47> 지원금 수혜현황_ 개인후원금



<그림 3-48> 개인후원금 현황

IV. 연극생태계 지형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IV. 연극생태계 지형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연극 생태계 구성원의 인식: 연극분야의 진입과 성장의 어려움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조사에 응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은 연극 분야에 진입동기가 ‘연극 관련학과등 전공과 연계’ 보다 ‘연극에 대한 매력’을 진입동기로 꼽고 있었으며 공동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을 연극 활동의 가치로 생각하였다. 진입경로는 지인의 소개로 연극단체를 찾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신 스스로 찾아서 단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주로 극작, 음악과 같이 개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분야는 신춘문예나 완성된 작품을 개인적으로 공연단체들과 잦은 접촉을 통해 공연화 하는 과정을 거치고, 기술 스태프 분야에선 선후배 관계를 통하여 소규모 전문 스태프팀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으로 진입을 시작하게 되며 비교적 진입과 성장과정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출과 배우들은 상대적으로 진입과 동시에 연극활동을 하기 힘든 분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2-3년간 준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답했다.

연극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80%에 달할 만큼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정도’, ‘본인기술이나 능력의 활용정도’, ‘일의 평가’,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환경’, ‘소득수준’, ‘복리후생’, ‘직업의 안정성’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분야별, 연령별로 연극에 대한 문제점과 전망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극분야의 종사자들에게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탐구 욕구가 강하였으며 체반 환경의 문제보다 예술적인 탐구의 기회가 절실하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보아 예술적 동기 부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술적 동기부여를 받는 형태로 교육기관에서 재교육보다는 직접 체험하거나 작업할 수 있는 해외연수, 워크숍의 기회가 더 유용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연령별 현황에서 살펴보았든 20대에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진입하는

단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연극 활동이 비슷하나 30대, 40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연극의 근무환경’과 ‘복리후생’의 문제가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다.

2. 연극 제작 극단의 현황

1) 인력현황

조사의 특성상, 설문에 성실하게 참여해 준 단체는 최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보이고 있는 단체들이다. 이들은 주로 창립된지 10년내외의 단체들로 비교적 젊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에 창립된 단체들이 전체 응답의 81.9%였다. 최근 6년 이내 창립된 단체도 37.7%를 차지하여 조사에 응한 인력들이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들 극단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838명으로 67%를 여성이 414명으로 33%로 나누어진다.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극작, 연출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많이 종사하고 있었으며 배우와 기술스텝 분야에서도 남성 종사자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운영과 행정에 속하는 분야인 기획/제작과 사무인력에서 성별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이론/평론 분야에서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 비슷한 비율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들의 경우 전 활동 영역에서 30대와 40대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연출분야에서 세대별 활동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활동의 성격상 극작은 30대, 40대순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스텝의 경우엔 30대가 활발히 활동하고 그 뒤를 20대가 뒤를 잇고 있었는데, 디자인, 감독그룹에 속하여 도제식으로 양성되는 기술스텝분야의 특성과 관련학과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진입등으로 많은 수를 차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 연출, 기술스텝의 분야에만 60대이상의 활동이 나타나며 그중 연출인력이 가장 많았다.

여성인력의 경우 남성인력과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전체의 43%가 20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30대가 37%, 40대가 15%로 연령별 활동인원이 현저하게 줄어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배우인력에서는 20대와 30대가 84%를 차지하고 40대 이후에는 16%만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연극인들의 경우 남성들보다 일찍 연극계로 진입하여 결혼과 임신, 출산등의 이유로 극단활동과 연극활동을 일찍 포기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번 조사에서 통계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2) 공연활동 현황

조사에 참여한 77개 단체가 밝힌 공연활동으로는 크게 자체제작공연(정기공연, 기획공연), 공연예술축제 참가, 국내초청공연, 해외공연으로 나눌 수 있다. 공연활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체 제작공연이라고 대답했고, 그 뒤를 이어 국내초청공연이라고 답했다. 최근 지역의 문예회관의 초청공연이나 관계기관에 상주하여 공연하는 것이 증가 한 만큼 국내초청공연 횟수와 자체제작 공연의 횟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해외공연 참가는 전체 작품수의 2%에 못 미치는 숫자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자체 제작 공연 현황을 살펴보면 총 공연작품수는 178편, 공연횟수는 8,280회로 나타났다. 총관객은 72만명정도로 밝혔으며, 이 숫자는 개별 단체가 평균 47회의 공연에 88명 정도의 관객을 맞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체 관객 중 76%의 관객을 유료 관객인 것으로 밝혔다. 자체제작공연의 최근 2년간의 총수입은 108억원으로 수입은 입장수입 81%, 각종기금 12%, 협찬금 4%, 기타 수입이 3%로 나타나며 연극단체 공히 다양한 수입원을 갖고 있지 않아 입장수입에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공연의 흥행에 민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체 제작공연을 위해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작품 당 평균 1억4천 950만원으로 작품 한편 당 평균수입은 6천69만원이므로 지출이 수입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적자임을 나타낸다.

다른 공연활동들 중 공연예술축제 참가를 위해서는 지출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초청공연에서는 초청사례와 입장수입이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수입이 지출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초청공연이 연극단체들의 자체제작공연의 적자분의 짐을 덜어주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공연의 경우는 자체제작한 공연물을 해외에서 공연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지출이 자체제작공연에 비해 많은 액수가 아니었고, 수입과 지출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무리하게 해외공연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진하는 채널을 살펴보면 직접접촉하여 경로를 개발하는 경우가 전체의 60%로 공연단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다음은 기관의 추천 20%, 국내에이전트는 16%, 아트마켓은 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에이전트를 통한 해외공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공연의 대상국은 주로 아시아 국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 재정현황

공연활동을 위한 예술활동경비와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경비로 1억 5천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중 50%가 공연활동으로 인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따라 예산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조사단체중 예술활동경비로 연간 2천만원 미만을 지출한다고 대답한 단체가 10개로 나타난 반면, 2억원이상이라 대답한 단체는 14개로 예술활동경비의 차이가 매우 높았다. 운영경비로 평균 지출 금액은 6,042만원 이었는데 이 역시도 천만원 미만의 운영경비가 19.4%로 나타나는 반면 5천만원 이상의 운영경비를 지출하는 단체도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단체 중 다수의 인력이 상근하는 체계를 가진 제작사의 형태로 발전한 단체들이 조사에 참여하여 인건비등의 지출이 많이 차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간 예산 조달 방식에 관한 조사는 자체수입과 외부에서의 수입 즉 민간지원과 공공기금을 포함한 자체수입이외의 수입의 비율에 대해서 물었다. 조사 단체중 16.4%에 해당하는 20개 단체가 연간예산의 80%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대답했다. 조사단체의 48%에 해당하는 단체35개가 연간예산의 70%를 자체 해결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체가 외부로부터의 조달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외부수입원을 보면 자치단체시/도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문화예술위원회 18.6%, 민간 공공기관 14.7%, 기업협찬 및 개인 후원금 11.4%, 중앙정부 10%, 자치단체 시/군/구 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극단체들이 비교적 지자체와 문화예술위원회처럼 정기적인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지원응모 빈도가 높은데서 오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외부수입 액수로 보면 조사단체의 134개의 공연 중 외부로부터의 수입이 총 26억6,215만원인데 이중 민간공공기관 지원금이 8억7,100만원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치단체 16%, 문화예술위원회 13.8%, 중앙정부 13.2%, 개인 후원금 8%, 자치단체 시군구 5.8% 순이었다. 여기서 민간공공기관의 지원금은 전국문예회관 연합회가 관리하는 복권기금 사업중 우수공연지역문예회관 공연비가 98.5%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초청공연이 수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하였다.

예술정책연구 2006-08 ‘연극분야 실태(생태계) 조사’

부록

1. 연극분야 생태계 조사 설문_ 심층인터뷰용

연극분야 생태계 조사_ 심층 인터뷰 설문지

본 조사표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되며, 사업체나 개인의 개별사항은 통계법 8조에 따라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 귀하에 관한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 O표를 하거나 또는 적절한 응답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명		전화번호		
성별	1) 남 2) 여	태어난 연도		년
연극부문 입문 연도와 일한 총 경력*	입문: 년 총경력: 년	참여(발표) 했던	완성작품	편
		연극작품의 총 개수	미완성작품**	편
최종학력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 졸업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졸업(석사) 5) 박사학위 소지			
전공***	1) 연극관련 학과 또는 학교 2) 예술계(연극 외) 3) 인문사회계 4) 이공계 5) 기타_____			

* 기간 산정 시 중간에 일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일했던 기간을 모두 합하여 주십시오

** 미완성 작품은 프리프로덕션단계가 끝나고 주요 배우 및 스태프 라인업이 된 후 중단된 작품을 의미합니다.

*** 전공 : 최종 학력의 전공을 말씀해주십시오.

* 다음 쪽부터 주어지는 설문에서는 현재 참여하고 계신 연극을 기준으로 답하여 시
되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연극을 중심으로 대답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이 일자리’라고 하겠습니다)

* 먼저 연극 생태계에 진입하시게 된 경로를 여쭙어보겠습니다.

1. 연극분야에서 일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2. 연극분야에서 처음 일하게 된 주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3. 현재 이 일자리에서 맡은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 ‘이 일자리’는 현재 참여하고 계신 프로젝트 (현재 참여하지 않는 경우 최근 했
던 연극 프로젝트를)를 말합니다.

4. 연극분야에서 담당했던 일의 변화를 말씀해주세요

경력순서	작품명	담당했던 일	담당기간
1			
2			
3			
4			
5			
6			

5. 연극분야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6.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교육 프로그램을 한 개만 선택하신 후 소요된 기간을 알려주세요.

1	정규교육과정	년	개월
2	도제방식훈련	년	개월
3	비정규교육 (학원, 아카데미, 과외, 개인지도)	년	개월
4	해외 유학/연수	년	개월
5	실질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현장 훈련	년	개월
6	독학	년	개월
7	기타(구체적으로 명기해주세요) _____	년	개월

6-1. 6번 문항에서 응답한 교육 및 훈련을 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7. 현재 하고 계신 일을 향상시키기 위해 6번에서 응답하신 이외의 다른 교육을 받고 싶다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규교육과정	
2	도제방식훈련	
3	비정규교육(학원, 아카데미, 과외, 개인지도)	
4	해외 유학/연수	
5	실질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현장 훈련	
6	독학	
7	기타(구체적으로 명기해주세요) _____	

7-1. 7번에서 응답한 교육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다음은 연극 생태계에 대한 만족도를 여쭙어보겠습니다.**

8. 이 일자리에서 일할 때 계약을 하셨습니까?

** ‘이 일자리’는 현재 참여하고 계신 프로젝트(현재 참여하지 않는 경우 최근 했던 연극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9. 이 일자리에서 계약된(계약이 없으면, 예상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월 만원 또는 총 만원

10. 이러한 보수는 누가 정하였습니까?

11. 연극 활동을 통한 월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고, 가게 수입의 % 정도나 되십니까?
월 평균 만원/ 가게수입의 총 %

12. 주당 평균 몇 일, 몇 시간 일하십니까? 주당 평균 일/ 시간

13. 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 4) 기타

14. 이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 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15. 보통 하나의 연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평균 기간은? 년 개월

16. 현재 일하고 있는 연극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르겠 다
1) 전반적 만족도						
2) 하는 일의 내용						
3) 근무환경						
4) 근무시간						
5) 소득수준						
6) 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정도						
7)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의 활용정도						
8) 작업 시 대인관계						
9) 복리후생						
10) 일의 평가						
11) 직업의 안정성						
12)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13) 직업에서의 장래성						
14) 연극분야 발전 가능성						

17. 연극분야 이외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있다면 어디에 얼마동안? / 년 개월

18. 어떤 경우 이직을 고려하시는지?

19. 연극분야 이외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보수를 제시할 경우 옹기실 의향이 있으신지?

1) 있다 2) 없다 3) 잘 모르겠다 4) 기타

★ 마지막으로 연극 생태계에 대한 문제점 및 전망을 여쭙어보겠습니다.

20. 본인이 '연극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21. 연극분야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22. 연극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3. 연극분야 인력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연극분야 실태(생태계) 조사 설문지_극단용

A (단체용)

Code	ID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
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시 행 기 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관 기 관 : 서울연극협회

연극분야 실태(생태계)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연극분야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연극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쁘시더라도 부디 시간을 내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통계 목적을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귀 단체에서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다만 ‘단체 일반 현황’ 관련자료는 귀 단체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공개하고자 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정보이용동의서’ 참조)

2006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조사문의 : 서울연극협회 / 남기웅 책임연구원, 이희정 보조연구원

Tel : 02-744-0300 Fax : 02-3673-0793 E-mail : stheater2007@korea.com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일시	2006년 월 일
--------	--	-------------	--	------	--------------

1) 주요 활동 장르는 단체 설립목적 등에 명시된 분야나 최근 2년간 공연활동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장르를 기준으로 1곳만 체크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체 인력 현황¹⁾

구분	남자					여자					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극작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0명
배우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0명
연출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0명
기술스텝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0명
기획/제작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0명
이론/평론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0명
사무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0명
계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¹⁾ 인력 현황은 연극분야 종사자 현황을 알아보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귀 단체의 단원의 분야, 성별, 연령을 구분하여 개인당 1가지 분야만 선택해 주시고, 연습생 및 보조원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연현황

3-1. 총 공연 실적¹⁾

구분	공연작품수 ²⁾
자체제작(정기,기획)공연	편
공연예술축제 참가	편
국내초청공연 ³⁾	편
해외공연	편

¹⁾ 총 공연실적은 설립(창립) 이후의 모든 공연작품의 수를 의미합니다.

²⁾ “공연작품수”는 하나의 공연으로 기획된 작품의 수를 의미합니다.

³⁾ 국내초청공연은 일반초청공연 및 전문연 순회 사업, 각종 행사참여 등을 의미합니다.

3-2. 자체제작(정기,기획)공연 실적 (2005. 1. 1 ~ 2006. 10. 31)

문항		1공연	2공연	3공연	4공연	5공연
작품명						
공연장						
공연일수		일	일	일	일	일
공연횟수		회	회	회	회	회
유료관객수		명	명	명	명	명
무료관객수		명	명	명	명	명
수입	입장수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각종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협찬금 ¹⁾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타수입 ²⁾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타수입내용 ²⁾						
지출	대관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제작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인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홍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¹⁾ 협찬금은 기업 및 개인 후원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적어주세요.

²⁾ 기타수입은 자체자금을 제외한 기념품 판매 등의 기타 모든 수입을 의미하며, 기타수입내용은 적어주세요.

3-3. 공연예술축제 참가 (2005. 1. 1 ~ 2006. 10. 31)

문항		1공연	2공연	3공연	4공연	5공연
작품명						
공연예술축제명						
공연장						
공연일수		일	일	일	일	일
공연횟수		회	회	회	회	회
수입	참가사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입장수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각종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타수입 ¹⁾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타수입내용 ¹⁾						
지출경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4. 국내초청공연 (2005. 1. 1 ~ 2006. 10. 31)

문항		1공연	2공연	3공연	4공연	5공연
작품명						
초청단체(기관)						
공연장						
공연일수		일	일	일	일	일
공연횟수		회	회	회	회	회
수입	초청사례 ²⁾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입장수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각종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타수입 ¹⁾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타수입내용 ¹⁾						
지출경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¹⁾ 기타수입은 자체자금을 제외한 협찬금 등 기타 모든 수입을 의미합니다.

²⁾ 전문연사업의 경우 전문연기금은 초청사례에 표시

3-5. 해외공연 (2005. 1. 1 ~ 2006. 10. 31)

문항		1공연	2공연	3공연	4공연	5공연
작품명						
국가/도시						
페스티벌명 or 초청단체(기관)						
공연장						
공연일수		일	일	일	일	일
공연횟수		회	회	회	회	회
수입	초청사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입장수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각종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타수입 ¹⁾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타수입내용 ¹⁾						
지출경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제작형태 ²⁾	1.초청단체제작					
	2.단체직접제작					
	3.공동제작					
추진방법 ²⁾	1.직접접촉					
	2.기관추천					
	3.해외에이전트					
	4.국내에이전트					
	5.아트마켓					

1) 기타수입은 자체자금을 제외한 협찬금 등 기타 모든 수입을 의미합니다.

2) 제작형태 및 추진방법 중 해당하는란에 O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금 수혜 현황 (2005. 1. 1 ~ 2006. 10. 31)

구분	지원여부	지 원 처 ¹⁾	지원사업명 ¹⁾	지원받은액수
중앙정부 (문광부, 외통부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천원
				천원
				천원
자치단체 - 시/도 (지역문화재단 포함)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천원
				천원
				천원
자치단체 -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천원
				천원
				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천원
				천원
				천원
민간공공기관 (국제교류재단,금호재단,전문연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천원
				천원
				천원
기업협찬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천원
				천원
				천원
개인후원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천원
				천원
				천원

¹⁾ 지원처 및 지원사업명은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문예진흥기금’ 등의 지원처와 사업명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이용 동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귀 기관에서 “연극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취득한 우리 단체에 관한 제반 정보 가운데 다음 정보에 한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로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제공 정보의 범위: 1. 단체일반현황

2006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